



영화 퀴즈.zip



이런 선생님께 추천드려요!

교과서 속 다양한 영화를
쉽게 알려 주고 싶은 선생님

조금 남은 수업 시간도
알차게 만들고 싶은 선생님

재미있는 영화 퀴즈로 학생들의
수업 동기를 높이고 싶은 선생님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책 소개

미술 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명화 20개를 뽑아 소개 글, 명화 퀴즈를 담은 학습지를 만들었어요.

학생들에게 명화를 쉽게 알려 주고 싶을 때, 명화 퀴즈로 남은 수업 시간을 알차게 채우고 싶을 때 활용해 보세요.

실행력 좋은 여리와 제대로 짝을 만난 수림이가 미술을 배우기 위해 나선다!
손에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고!

한 줄 설명

명화, 재미있는 문장 한 줄로 이해해요.

명화와 작가 정보

명화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요.

이해 썩! 쉬운 설명

머리에 썩썩 들어오는 설명으로 명화를 쉽게 읽어요.

곳곳의 QR코드

작품 크게 보기, 전시 VR, 활동 애플리케이션, 관련 동영상 등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수업이 더욱 쉬워졌어요.

명화와 친해지는 퀴즈

친구와 대화하듯 퀴즈를 풀면서 명화와 가까워져요.

메신저 창을 담은 디자인

학생에게 친근한 디자인으로 재미있게 답변을 적어요.

음악을 눈으로 본다면?

18



노랑 분홍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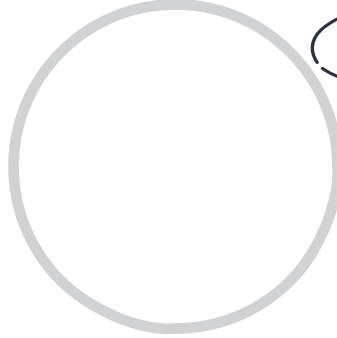
"구성 요, 속 점, 선, 면, 색에 담긴 선율과 박자를 느껴 보세요. 그림을 감상하며 떠오르는 음악이 있으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적어 보세요."

"내가 그린 그림을 노래로 만들어 주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직접 작곡해 보세요. 그리고 모듬편이 모여 작자 만든 음악을 하나로 이어지게 재창하여 감추지를 풀어 보세요."



1. 표현하고 싶은 음악을 상상하여 그려요.
2. 색을 바꾸면 소리가 달라져요.
3. 재형 버튼을 눌러 나의 노래를 감상해요.

나만의 프로필을 설정해요!



프로필을 그려
퀴즈를 풀 때 사용해요!

이름

학급

닉네임

나의 인생 명화

나의 관심 영화와 미술가

#반_고흐

#인왕제색도

#모건도

#No.5

#무용총_수렵도

#쇠라

#절규

#칸딘스키

#피카소

#사과_바구니가_있는_정물

#로댕

#벨라스케스

#흰_소

#인상_해돋이

영화 만나러 가기 >>>>

차례 >

책 속
QR코드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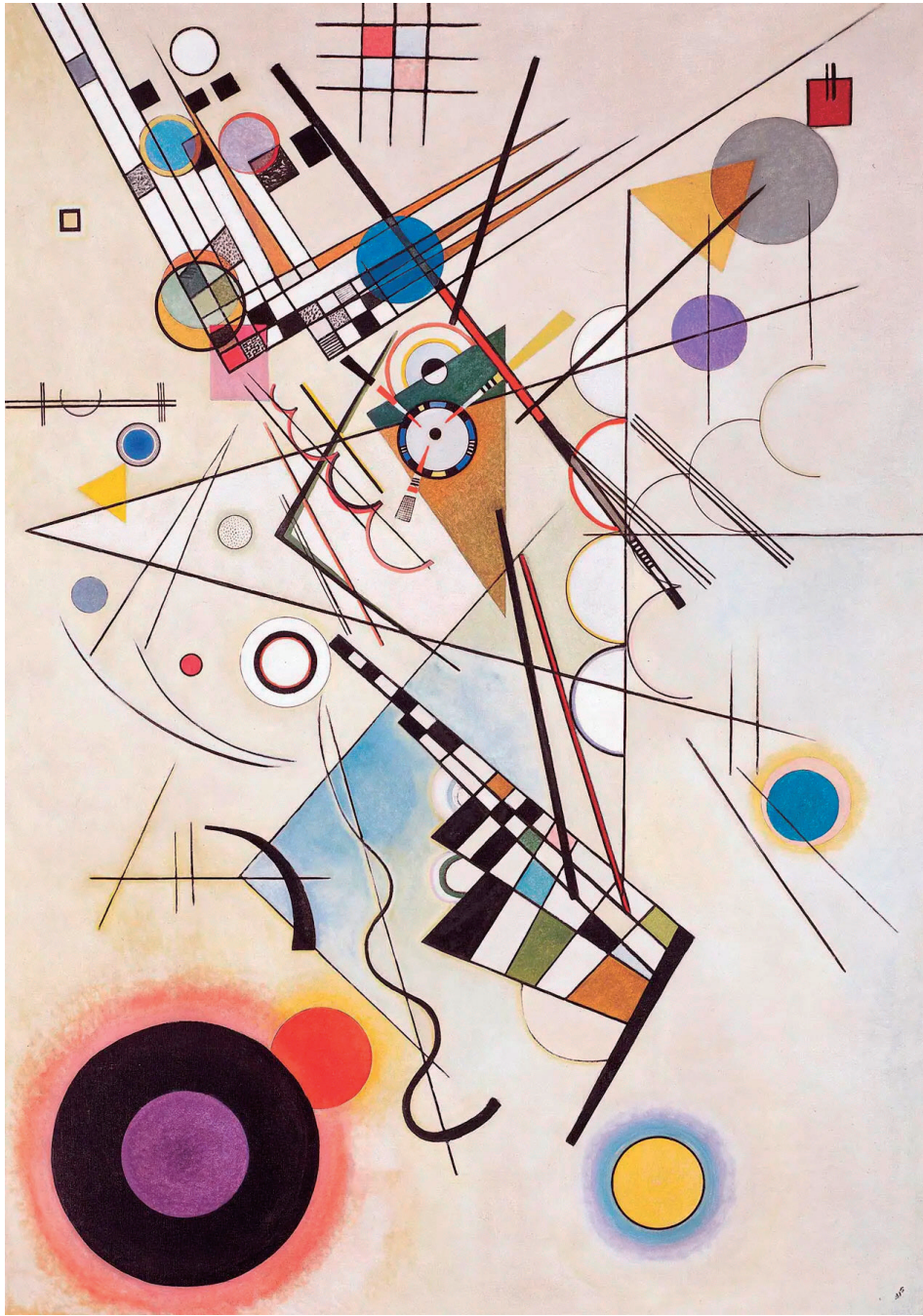
음악을 눈으로 본다면? 구성 8 / 칸딘스키 5	지학사 선정 가장 비밀스러운 그림 시녀들 / 벨라스케스 27
은아약! 절규 / 몽크 7	아이고, 시끄러워라! 야요도추 / 김득신 29
금손이 꿈을 그리면 몽유도원도 / 안견 9	무덤에서 만난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31
내 심장의 색깔은 Yellow 해바라기 / 반 고흐 11	주인아! 내가 지켜 줄게! 모건도 / 이암 33
희생할 결심 칼레의 시민 / 로댕 13	소 사랑, 나라 사랑 흰 소 / 이중섭 35
세상을 달리 보는 달리 이야기 기억의 영속성 / 달리 15	소원을 그려 봐 라스코 37
그림 맞아...? NO.5 / 플록 17	보면 볼수록 더 다채롭구나 인상, 해돋이 / 모네 39
한겨울에도 변치 않는 너 세한도 / 김정희 19	2년 동안 점만 찍으면 생기는 일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 쇠라 41
작은 것들을 위한 그림 초충도 8폭 중 '수박과 들쥐' / 신사임당 21	사과, 세상을 놀라게 하다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 / 세잔 43
산수화 한국 ver. 인왕제색도 / 정선 23	인생 영화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45
붓은 춤보다 강하다 게르니카 / 피카소 25	영화 퀴즈 정답 46

음악을 눈으로 본다면?

구성 8

(캔버스에 유채 / 140.3×200.7 cm / 1923년 작)

칸딘스키 (Kandinsky, Wassily / 러시아 / 1866~1944)



맛미

구독자 만 명

참 희한하네요, 그림에 사람이나 사물은 없고 온갖 알 수 없는 선, 도형, 색만 있으니까요. 이 그림의 내용이 이해가 되나요?

「구성 8」은 '추상 미술' 작품이에요. 대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개념을 표현한 거죠.

그림을 더 자세히 볼까요? 왼쪽에는 짙은 검정과 보라로 이루어진 원이 빨강을 내뿜고 있어요. 슬쩍 보아도 강렬해 보여요. 오른쪽 중간에는 뾰족뾰족한 선이 모여 있어요. 비늘 끝을 보았을 때처럼 서늘하게 날 선 느낌이 들어요.

「구성 8」의 점, 선, 면, 색은 칸딘스키가 음악 듣고 떠오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덕분에 그림은 '눈으로 감상하는 교향곡'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은 음표 하나 없이 음악의 선율을 그린 「구성 8」로 추상 미술을 탐험해 볼까요?



「구성 8」을 크게 보려면



칸딘스키는 악기 소리를 색깔과 연관 지어 이해했어요. 바로 아래 메시지에서요! 여러분은 「구성 8」 속 여러 가지 색들을 보면 어떤 악기가 떠오르나요? 다음 색과 어울리는 악기를 적어 봅시다.



칸딘스키

붉은 창색은 플루트, 어두운 창색은 첼로, 색조가 더 짙어지면 콘트라베이스의 소리를 담았다. 또 초록은 중간 톤의 바이올린, 빨강은 트럼펫의 울림 같다.

- 붉은 창색
- 어두운 창색
- 더 어두운 창색
- 초록
- 빨강



노란

분홍

검정

프린트를 그려 보세요!



「구성 8」 속 점, 선, 면, 색에 담긴 선율과 박자를 느껴 보세요. 그림을 감상하며 떠오르는 음악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적어 봅시다.



내가 그린 그림을 노래로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접 작곡해 보세요. 그리고 모듬원이 모여 각자 만든 음악을 하나로 이어지게 재창조하여 합주회를 열어 봅시다.

그림으로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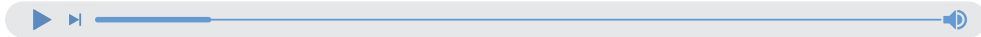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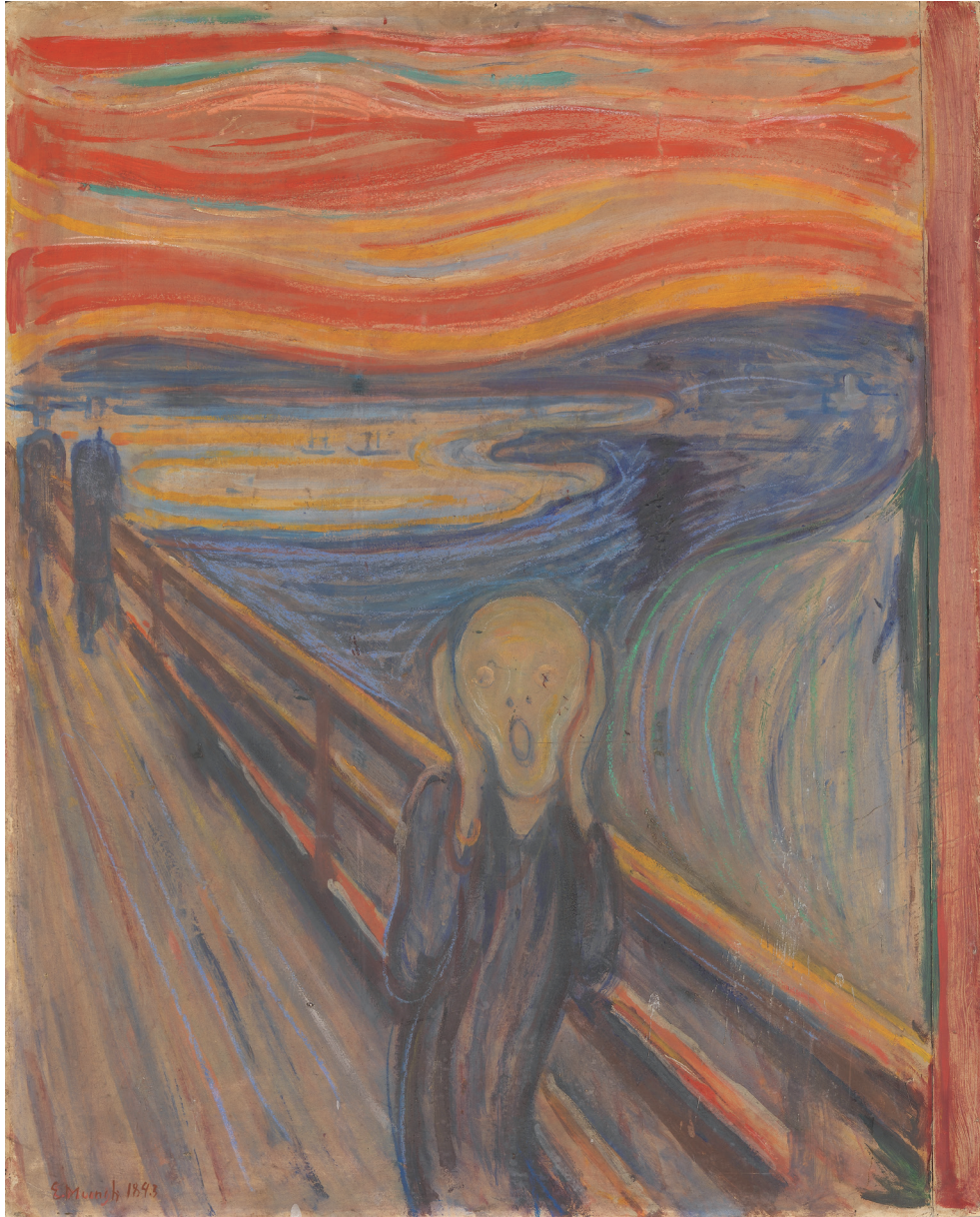
-
-
-

- 표현하고 싶은 음악을 상상하며 그려요.
- 색을 바꾸면 소리도 달라져요.
- 재창 버튼을 눌러 나의 노래를 감상해요.

절규

(캔버스에 유채 / 91×73.5 cm / 1893년 작)

몽크 (Munch, Edvard / 노르웨이 / 1863~1944)



밋미

구독자 2만 명

“으아악!” 그림에서 소리가 난다면 이런 비명이 들려올 거예요. 어디선가 한 번쯤 보았을 이 작품의 제목은 「절규」입니다. 제목과 그림이 잘 어울리나요?

「절규」를 그린 몽크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가슴 아픈 이별을 겪었어요. 5살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누나도 죽음을 맞이했죠. 게다가 여동생은 우울증으로 정신 병원에 보내졌어요. 이런 상처 때문인지 몽크는 늘 우울하고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담아 그림을 그렸죠.

1893년, 몽크는 세상을 뒤흔들 명작인 「절규」를 발표합니다. 분위기가 으스스한 남자가 귀를 막은 채 소리를 지르고, 그 뒤로 빨간 노을과 풍경이 파도치는 듯한 그림이었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안, 공포를 푹푹 뭉쳐 놓은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누구나 한 번쯤 느껴 본 우울함과 불안함을 생생하게 담아낸 그림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규」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몽크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 봐요.



「절규」를 크게 보려면



그림을 그리던 몽크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아래는 몽크가 「절규」를 그리며 쓴 일기예요. 글을 읽으며 몽크의 마음을 상상해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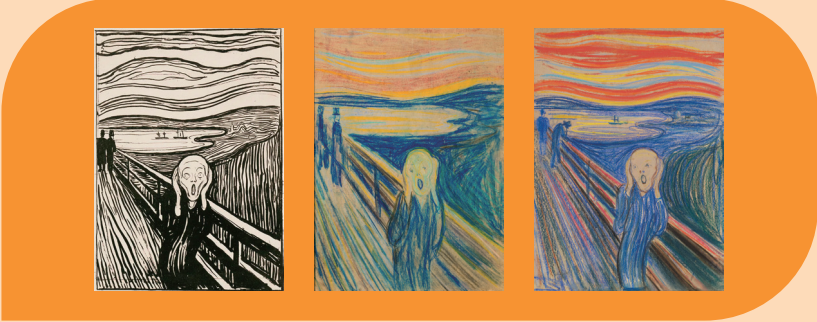
몽크

해가 질 무렵 나는 두 친구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빨갛게 변했다. 극도의 피로를 느낀 나는 멈춰 서서 난간에 기대었다. 불의 혀바닥과 핏물이, 검푸른 피오르 해안을 따라 퍼져 갔다. 공포에 몸을 떨며 뒤흔어진 나를 남겨 두고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다. 그때 나는 거대하고 무한한 자연의 절규를 들었다.

프로필을 그려 보세요!



미술가들은 작품 하나를 조금씩 다르게 하여 여러 점으로 그리기도 해요. 「절규」도 비슷한 듯 다른 작품이 세 개 더 있습니다. 오늘 배운 「절규」를 포함한 네 작품을 비교하며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비슷한 점: 불에 손을 얹고 있는 남자
차이점:



유명한 작품은 다른 작품에 의해 재해석되거나 따라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처럼 존경을 담아 원작의 한 부분을 따라 만드는 방법을 '오마주'라고 합니다. 「절규」를 오마주한 영화도 있어요. 아래 이미지와 줄거리를 함께 보며 영화감독이 「절규」를 오마주한 이유를 모두 골라 봅시다.



크리스마스, 케빈은 형과 싸워 그 별로 다락방에 갇히게 된다. 그러던 중 케빈의 가족들은 비행기 시간 때문에 서두르다가 케빈을 잊고 프랑스로 가 버린다. 혼자 남은 케빈은 오히려 하느님이 소원을 들어주셨다며 기뻐하지만, 도둑 2인조가 자신의 집을 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나홀로 집에, 1990)

- ① 유명한 작품과 비슷하게 하여 친숙함을 주고 싶어서
- ② 영화감독이 몽크의 손주라서
- ③ 「절규」의 주인공이 영화 주인공도 하고 싶다고 해서
- ④ 영화 속에 「절규」와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금손이 꿈을 그리면

몽유도원도

(부분 / 비단에 수묵 담채 / 38.7×106.5 cm / 1447년 작)

안견 (조선 / 15세기)



맛미

구독자 3만 명

안평대군은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박팽년이라는 신하와 함께 산 아래를 걷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돌은 기이한 돌을 만났어요. 돌 앞에서 어디로 갈지 망설이고 있으니, 한 사람이 다가와 길을 알려 주었어요. 안평대군과 박팽년은 그 길에서 계곡을 만났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계곡마저 끝난 곳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름다운 꽃잎이 흩날리는 북송이별이 나타났거든요. 안평대군은 두 눈을 의심하며, 이곳이 무릉도원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두 신하, 최항과 신숙주를 보았죠. 네 사람은 함께 풍경을 즐겼어요. 즐거움도 잠시, 안평대군은 퍼뜩 잠에서 깨어났어요.

“내 꿈을 그려 주게.” 안평대군은 안건을 불러왔어요. 조선 최고의 미술가였던 안견은 3월 만에 꿈 이야기를 그림으로 완성했어요. 안평대군은 그 그림 옆에 직접 제목을 쓰고, 제작 과정과 시를 적었어요. 또 글을 잘 짓기로 유명한 2명의 문인에게 그림을 칭찬하는 글을 짓도록 했죠. 이걸 모두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에 얹힌 이야기예요. 꿈을 그린 그림이라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은 미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그림인 「몽유도원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 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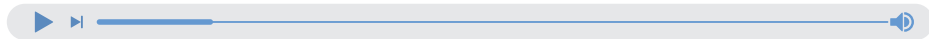


「몽유도원도」를 크게 보려면

해바라기

(캔버스에 유채 / 95×73 cm / 1889년 작)

반 고흐 (Van Gogh, Vincent / 네덜란드 / 1853~1890)



밋미

구독자 4만 명

두근두근! 친구 고흐를 기다리는 반 고흐의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프랑스의 시골집에서 고흐와 함께 지내며 멋진 그림을 그릴 날들을 기대했거든요. 반 고흐는 집을 장식할 그림으로 해바라기를 담은 정물화를 그리기로 했어요. 반 고흐는 '해바라기는 나의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해바라기를 좋아하고 많이 그렸어요. 태양을 닮은 해바라기의 모습 덕분에 '태양의 화가'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답니다.

반 고흐는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의 감정에 따라 '색'을 사용했어요. 실제로 보이는 색을 재현해 내는 게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색과 자신의 감정에 어울리는 색을 칠했죠. 그럼 반 고흐의 그림에 많이 쓰인 색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노랑이랍니다. 반 고흐에게 '노랑'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함께 다음 쪽에서 그 답을 찾아보아요.



「해바라기」를 크게 보려면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배치하고, 오랫동안 관찰하며 그린 그림을 정물화라고 해요. 「해바라기」도 정물화에 속 하죠. 반 고흐의 작품 속 사물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요? 아래의 구도 중 「해바라기」와 가장 유사한 구도를 골라 보세요. 또 각각의 구도가 주는 느낌이나 효과를 찾아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 「해바라기」의 구도는 아래의 _____ 구도와 유사해요.



삼각형 구도

원만하고 평면적



역삼각형 구도

움직임과 변화, 불안



원형 구도

안정감과 통일감



S자형 구도

깊이감과 움직임

프로필을 그려 보세요!



아이돌 그룹 BTS의 뷁는 보라색에 '사랑해'라는 뜻을 담아 '보라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처럼 색깔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 고흐에게 '노랑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래 말을 통해 그 의미를 추측해 봅시다.



반 고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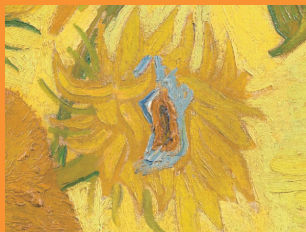
예전에는 이런 행운을 누리 본 적이 없다.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파랗고 태양은 연한 노란 빛으로 반짝인다. 천상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푸른색과 노란색의 조합은 얼마나 부드럽고 매혹적인지.

이것은 환한 바탕으로, 가장 멋진 그림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 ... 고갱과 함께 우리들의 작업실에서 살 게 된다고 생각하니 작업실을 장식하고 싶어졌거든.

‘노랑해’는



반 고흐와 신사임당이 그린 꽃 그림을 관찰해 보세요. 두 그림은 재료와 그린 방식이 다르답니다. 각 그림의 재료와 그린 방식을 생각해 보고, 그림이 주는 느낌을 비교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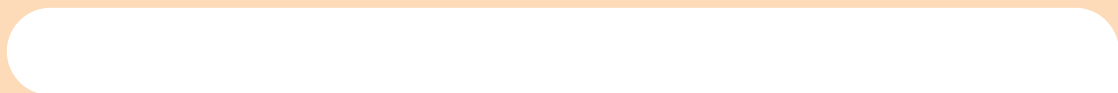


반 고흐



신사임당

두 그림을 비교하려면



칼레의 시민

(청동 / 180×220×230 cm / 1884~1888년 작)

로댕 (Rodin, Auguste / 프랑스 / 1840~1917)



밋미
구독자 5만 명

옛날 옛날, 프랑스에 칼레라는 작은 도시가 있었어요. 당시 프랑스는 영국과 전쟁 중이었고 칼레는 영국에게 점령당했죠. 영국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 대표로 6명이 나와서 대신 죽으면, 나머지 시민은 살려 주겠다.” 이런 상황에 대해 누가 나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때 용기를 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자, 시장, 법률가 등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이 6명의 시민을 보고 새로운 말이 생겨났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사회적 상류층이 지니는 높은 도덕적 의무라는 뜻이죠.

로댕은 이야기 속 시민 6명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칼레의 시민」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약간 의아하네요. 조각 속의 6명은 멋진 표정이 아닌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같은 마음이었는지, 사람들은 로댕에게 “우리의 영웅을 망쳤어.” 하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댕은 이 조각에 칼레의 시민을 평범한 인간으로 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이런 말이 들려오는 것 같죠.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결심을 한 게 대단하지 않나?”

위대한 조각가 로댕과 함께 조각의 세계를 탐험해 봅시다.



「칼레의 시민」을 크게 보려면



작품 속 시민들의 표정을 살펴보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여 적어 봅시다.

시민의 표정을
크게 보면
크게 보면

표정을
크게 보세요!



아래는 로댕이 태어나기 전 고대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조각 작품, 「밀로의 비너스」예요. 키워드를 활용하여 「칼레의 시민」과 「밀로의 비너스」의 차이점을 적어 봅시다.



키워드

표현 대상, 특징, 여성, 평범한 사람, 아름다운 비율, 인물의 감정 등



「칼레의 시민」은 청동 조각 작품으로, 철쭉이나 점토 등 형태를 변형하기 쉬운 재료를 덧붙여 만든 후 청동으로 형태를 따서 만들었어요. 영상을 감상한 후 청동으로 형태를 변형할 때의 장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청동 조각
제작 과정을 보려면



세상을 달리 보는 달리 이야기

기억의 영속성

(캔버스에 유채 / 24x33 cm / 1931년 작)

달리 (Dali, Salvador / 에스파냐 → 미국 / 1904~1989)



©뉴욕현대미술관



깃미
구독자 6만 명

부리부리하게 뜯 눈, 독특한 콧수염, 그리고 시계. 여러분은 이 문장을 보면 어떤 미술가가 떠오르나요? 아마 이 시간 이후로는 이 사람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바로 '살바도르 달리'들요!

달리는 어린 시절도 참 독특했어요. 중력을 실험하겠다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등 특이한 행동을 일삼았거든요.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죠. 성모 마리아 조각상을 그려 오라는 숙제에 뜬금 없는 저울을 그려 갔으니 말이에요.

그런 달리를 사로잡은 것은 '꿈'이었어요. 현실을 초월한 소재, 꿈에서 본 장면들, 무의식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죠. 심지어 달리는 숟가락을 들고 잠에 들기도 했어요. 잠에 취해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팽그랑 소리에 잠에서 깨어 바로 꿈에서 본 장면을 그리려고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달리 보는 법'을 알려 준 달리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림 속 괴상하게 생긴 시계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수수께끼를 풀어 봅시다.



*기억의 영속성'을 크게 보려면



우리는 달리의 그림을 초현실주의 작품이라고 표현해요. 이때 '초현실주의'란 무엇일까요? 왼쪽 내용과 연관하여 아래 메시지 속 초성을 보고 단어를 유추하여 적어 봅시다.

프로필을 그려 보세요!

초현실주의는 현실을 초월하여, **기**과 **모**의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미술이에요. 비현실적인 대상을 상상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낸 달리가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미술가입니다.



달리의 작품 세계는 '프로이트'라는 유명한 학자의 생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아래는 '기억의 영속성'에 담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프로이트와 달리의 이야기예요. 참고하여 '무의식'을 중심으로 달리의 그림을 해석해 봅시다.



프로이트

어린 시절의 기억은 무의식에 큰 영향을 미쳐, 예전에 전쟁을 겪으며 큰 소리를 들었다면 나중에 비슷한 소리만 들어도 엄청난 불안을 느끼곤 하지. 우리가 꾸는 꿈은 이런 무의식을 엿볼 수 있는 통로란다.



달리

내 작품은 '꿈' 속 장면을 그린 그림이야.

나는 어렸을 때 죽은 박쥐 시체 위를 기어다니는 게임을 본 적이 있어. 아주 끔찍하고 무서웠지. 게임의 시간을 먹는 죽음의 존재인 게 틀림없어.

어느 날 부엌으로 가 보니 케망베르 치즈가 졸졸 녹고 있었어. 손가락으로 쿡 찌렀더니 손가락에 끈적하게 묻어 녹아내렸지. 이 치즈를 보니 영감이 탁 떠오르더군!

①



②



두 시계는 각각 어떻게 생겼나요?

①의 시계는

②의 시계는

두 시계를 이렇게 표현한 달리의 무의식에는 무엇이 있었을지 달리의 말을 힌트 삼아 생각해 봅시다.

NO.5

(캔버스에 유채, 에나멜 / 244×122 cm / 1948년 작)

폴록 (Pollock, Jackson / 미국 / 1912~1956)



「NO.5」를 크게 보려면



액션 페인팅을 보려면



맛미

구독자 7만 명

이 그림을 보면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이것도 그림 맞아...?” 어린이가 물감을 가지고 논 흔적 같기도 하고, 붓을 놓쳐 물감이 사방으로 튀어 버린 것 같기도 하네요. 영화 속 세계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걸까요?

폴록은 그림을 이렇게 그림니다. 우선 커다랗고 새하얀 캔버스를 바닥에 눕히고 그 위를 요리조리 다니며 물감을 뿌리죠. 굳은 붓, 막대기, 주사위 같은 도구로요. 그 끝엔 이런 작품이 완성돼요.

어떤 비평가는 폴록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폴록의 고민과 행동, 그 안의 힘을 봐! 완성된 그림은 폴록의 ‘액션’ 끝에 남는 흔적일 뿐이야.” 폴록의 작품을 정확히 설명한 말이었죠. 폴록은 그리기 과정이 결과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추후 폴록의 그리기 방식은 이 말로 인해 ‘액션 페인팅’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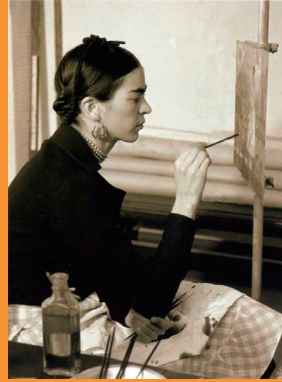
미술계에 큰 충격을 준 폴록, 여러분은 이런 폴록의 그림이 어떻게 보이나요? 다음 쪽을 통해 드넓은 미술의 세계를 탐험해 봅시다.



아래 사진은 작품을 만드는 폴록과 칼로의 모습이에요. 무엇이 다른지 두 사진을 관찰하며 두 미술가의 차이점을 적어 봅시다.



잭슨 폴록



프리다 칼로

프로필을 그려 보세요!

폴록은 칼로는



다음 이야기를 읽고 폴록의 입장에서 밸런스 게임을 해 봅시다.



폴록

나는 전통적인 표현 수단을 따르기 보단, 새로운 방법과 재료를 탐구했어. 붓으로 섬세하게 그림을 그리는 대신 아주 큰 캔버스에 나의 에너지를 뿜어내지. 캔버스 위에 물감을 부어 버리는 식으로 말이야. 붓을 휘둘러 물감을 떨어뜨리는 건 다반사야. 나는 이렇게 작품의 결과물보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폴록!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 A. 작품의 결과 VS B. 작품을 만드는 과정
- A. 물감을 뿌려 자유롭게 그리기 VS B. 정확하고 섬세하게 묘사하기
- A. 이젤에 캔버스 VS B. 바닥에 캔버스
- A. 구체적인 형태 VS B. 추상적인 형태



「NO.5」 작품이 경매에서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아세요? 무려 약 1억 4천만 달러였답니다! 심지어 그때는 2006년이었는데 말이예요. 만약 나왔다면 「NO.5」에 얼마의 가격을 제시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 작품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한겨울에도 변치 않는 너

세한도

(부분 / 종이에 수묵 / 23.9×108.2 cm / 1844년 작)

김정희 (조선 / 1786~1856)



밋미

구독자 8만 명

휘잉~ 그림을 보고 있으면 찬바람이 불을 스치는 것 같네요. 땅바닥에 풀은 하나도 없고, 외로워 보이는 집 한 채를 나무 네 그루가 지키고 서 있어요. 누군가는 이 그림을 보고 붓을 스스 그어 쉽게 그린 것 같다고 해요. 하지만 이 그림의 붓질 하나하나에는 미술가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의 '세한'은 설날 전후의 가장 심한 추위를 말해요. 인생의 시련을 뜻하기도 하죠. 김정희는 55세에 제주도로 유배되어 큰 시련을 맞았어요. 많은 사람이 김정희를 외면했지만, 제자 이상적만은 의리를 지켰어요. 책을 좋아하는 김정희를 위해 귀한 책을 계속 보내줄 정도로요. 김정희는 그런 제자가 너무 고마웠나 봐요. 그러니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소나무와 측백 나무에 이상적을 비유한 그림을 그렸죠.

「세한도」의 붓질을 자세히 볼까요? 지금껏 본 전통 그림에 비해 투박해 보여요. 물기가 없는 마른 붓에 진한 먹을 묻혀서 뿔뿔하고 거칠게 붓질한 결과인데요. 김정희는 이런 붓질로 메마른 겨울의 삭막함을 표현했습니다. 그 덕에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곳곳이 더 잘 나타나게 되었죠. 시련 속에서 더 빛나던 김정희와 이상적의 우정, 「세한도」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 볼까요?



「세한도」를 크게 보려면



「세한도」 전시를 VR로 보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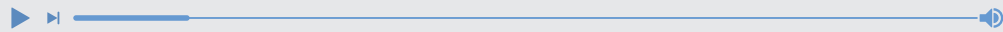
초충도 8폭 중 ‘수박과 들쥐’

(부분 / 종이에 채색 / 32.8×28 cm / 16세기 작)

신사임당 (조선 / 1504~1551)



「초충도」를 크게 보려면



맛미

구독자 9만 명

지폐 5만 원권에 그려진 위인이 누군지 아나요? 바로 신사임당이에요. 시 짓기, 글씨 쓰기, 자수 놓기에도 재능이 있었고 그림을 특히 잘 그렸던 조선 시대의 올라운더(all-rounder)죠. 오늘은 신사임당의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아요.

제목부터 볼까요? 먼저 ‘초충도’는 풀과 벌레를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뒤에 붙은 ‘8폭’은 병풍을 세는 단위죠. 제목의 앞부분에서 ‘풀과 벌레를 그린 8폭의 병풍’을 상상할 수 있어요. 여기에 ‘수박과 들쥐’라는 말이 붙었으니 수박과 들쥐가 있는 그림이겠네요.

그림을 자세히 볼까요? 화면 아래쪽에 커다란 수박 두 개가 놓여 있어요. 그중 큰 수박은 벌써 들쥐의 간식이 되었어요. 속이 파여져 빨간 과육과 알알이 박힌 수박씨가 보이죠. 수박의 뒤쪽엔 빨간 패랭이꽃이 피었어요. 하늘에는 달콤한 냄새를 맡은 나방과 나비가 날아다니네요. 정말 평화로운 모습 아닌가요?

그저 눈에 보이는 자연 풍경을 담은 듯한 이 그림엔 사실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옛사람들은 그림 속 소재에 염원을 담곤 했거든요. 오늘은 이 그림 속에 숨겨진 염원을 낱알이 살펴보아요.



산과 물의 풍경을 그린 그림은 산수화, 인물을 그리면 인물화, 바다 생물을 그린 그림은 어해도라고 해요. 신사임당의 그림과 같이 풀과 곤충을 그린 그림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프로필을 그려 보세요!

풀과 곤충을 그린 그림은 **초충도** 라고 해요. 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땅 위에서 자라나는 작은 풀과 꽃, 곤충을 그려요.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의 소재에는 저마다의 염원이 담겨 있어요. 그림에 그려진 소재와 어울리는 것을 선으로 연결한 후, 신사임당이 초충도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였을지 생각하여 메시지를 적어 봅시다.



수박

알, 애벌레, 번데기를 거쳐 성장한다

자식을 많이 낳아라



들쥐

청춘을 의미한다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가 되어라



패랭이꽃

씨가 많다

청춘처럼 오래 젊게 살아라



나비

늘 부지런히 돌아다닌다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라

이 그림을 본 당신께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초충도 옆에 있는 그림은 조선 시대 미술가인 심사정의 작품이에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신사임당의 그림과 비교하여 각각의 그림에 맞는 설명에 V 표시를 해 봅시다.



두 그림을 크게 보려면



신사임당

심사정

소박한 소재

다채로운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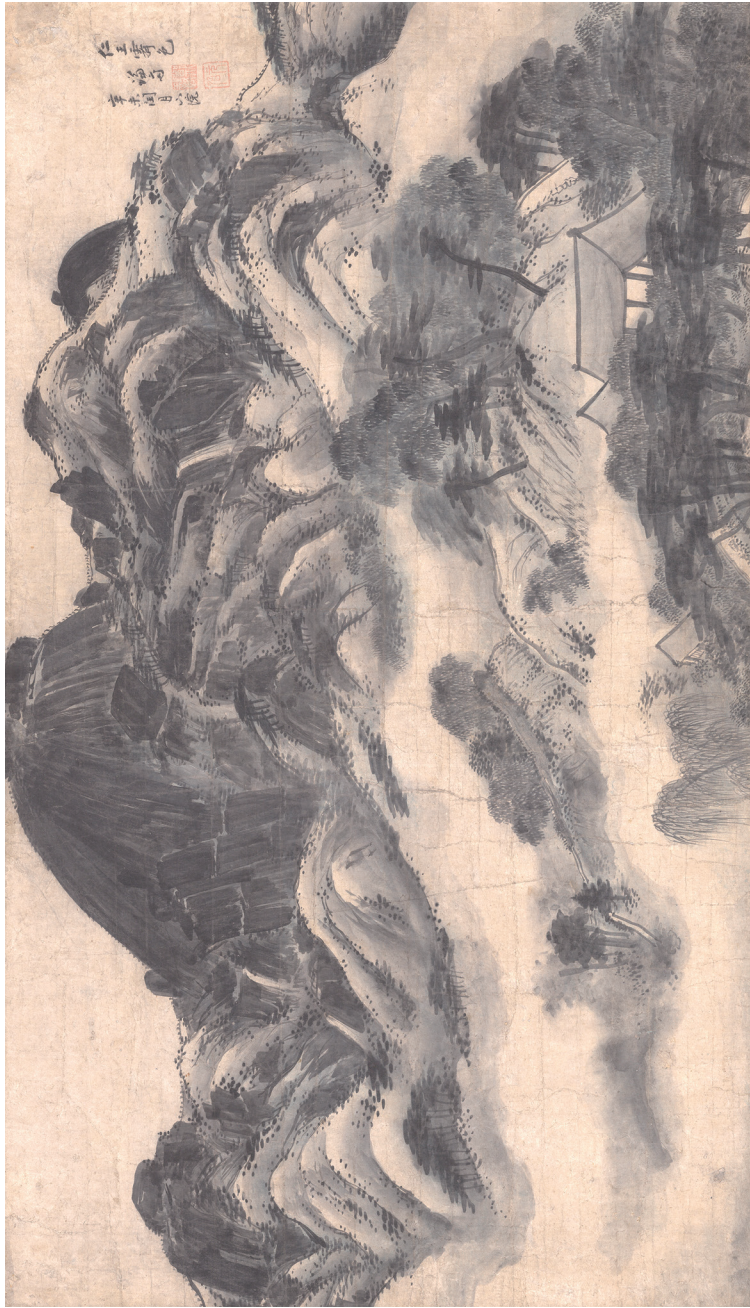
섬세한 표현

신수회 한국 ver.

인왕제색도

(종이에 수묵 담채 / 79.2×138.2 cm / 1751년 작)

정선 (조선 / 1676~1759)



「인왕제색도」를 크게 보려면



밋미

구독자 9.5만 명

주룩주룩, 이침부터 소나기가 내렸어요. 곧 비가 그치고는 날이 밝았죠. 비를 맞은 인왕산은 평소보다 웅장해요. 바위는 비에 젖어 더욱 짙은 색으로 보이고, 그 아래로 안개가 울렁울렁 피어오르죠. 정선은 그 순간을 먹으로 포착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은 오늘날 한국 전통 그림을 대표하게 되었어요.

그림을 자세히 볼까요? 그림 위쪽엔 인왕산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큰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혀서 거침없이 그렸는지 더욱 거대해 보이네요. 그림의 아래쪽에는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종이의 흰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니 짙은 바위 색과 더욱 비교됩니다. 이런 대비 덕분에 인왕산은 금방이라도 그림 밖으로 튀어나올 듯해요.

그림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풍경을 직접 관찰하며 그렸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이런 정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미술가들이 중국의 유명한 풍경화를 따라 그리거나 중국의 시에 나오는 풍경만 상상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정선이 「한국풍 풍경화」를 만든 거예요! 「인왕제색도」의 위대함, 다음 쪽에서 더 알아보까요?



「인왕제색도」는 대표적인 진경산수화 작품이에요. 그렇다면 진경산수화란 어떤 그림일까요? 앞쪽 글을 읽고 초성에 알맞는 단어를 채워 봅시다.

조선 시대 초·중기에는 화가들이 중국의 유명한 산을 상상하여 그리거나, 중국의 유명한 산수화를 따라 그렸어요. 그러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진경산수화'라는 새로운 산수화가 등장했어요. 여기서 진경산수화란 아름다운 **오르내리**의 산과 강을 **자자** **자자** 하여 그린 그림이에요. 아름다운 풍경이 더욱 잘 드러나도록 화가가 재해석을 하기도 해요.

포로필름
그려 보세요!



인왕산의 바위는 원래 밝은색을 띠지만 「인왕제색도」에서는 짙은 색으로 표현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왕제색도」 속 바위



인왕산 바위의 실제 모습



아면 학자는 정선이 「인왕제색도」에 이끈 친구 이병연이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추측해요. 아래 힌트를 보며 정선이 「인왕제색도」를 통해 친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상상하여 적어 봅시다.

힌트

- 1 「인왕제색도」의 그림 오른쪽엔 '인왕산 바가 깨다'라고 적혀 있다.
- 2 바가 깨면 날이 밝고 화창해진다.

병연아,



QR코드 속 영상은 현대의 미술가가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어떤 점이 「인왕제색도」와 다를지 이야기해 봅시다.

새로운 인왕제색도를
보려면



키워드 쓰인 재료, 색, 움직임 등

빛은 중요하다 강하다

게르니카

(캔버스에 유채 / 349.3×776.6 cm / 1937년 작)

피카소 (Picasso, Pablo / 에스파냐 / 1881~1973)



©레이나스피아미미술관



밋미

구독자 10만 명

꽤 으스스하죠. 색은 온통 검정과 회색뿐이고, 피아헤 보이는 동물과 사람만 보이니까요. 오늘은 '게르니카'라는 도시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들려 드릴게요. 1937년 4월 26일이었어요. 장날이라 중앙 광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죠. 그러다 갑자기 하늘에 43대의 독일 폭탄이 떨어졌죠. 사람들은 혼비백산해서 뛰어다녔고, 전투기는 남너노소 할 것 없이 총을 쏘아댔어요. 그렇게 4시간 동안 약 1,500명이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죠. 모두 히틀러가 에스파냐의 파시스트 프랑코를 지지하고, 전투기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어요.

파리에서 그림을 그리던, 에스파냐의 미술가 피카소는 게르니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잊혀지지 않길 바라며, 두 달 만에 가로 길이가 8m에 이르는 '게르니카' 작품을 완성했어요. 그림엔 죽은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어머니, 괴로워하며 울부짖는 말, 비명을 지르는 듯한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피카소는 '게르니카'를 그린 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림은 집을 장식하기 위해 그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에 대한 공격과 방어의 수단이다."

피카소는 '게르니카'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다음 쪽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게르니카'를 크게 보려면



피카소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피카소의 독특한 그리기 방식을 알아볼까요? 「게르니카」와 함께 피카소의 대표 작품으로 꼽히는 「우는 여자를 감상하고, 피카소의 입장에서 밸런스 게임을 해 봅시다.



©런던타임즈모던

「우는 여자」를 크게 보려면



- A. 대상을 새롭게 해석하여 그리기 VS B. 대상과 똑같이 그리기
- A. 납작한 것은 부피가 있게 그리기 VS B. 부피가 있는 것은 납작하게 그리기
- A. 모양을 나누지 않고 그리기 VS B. 모양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그리기
- A. 여러 시점에서 그리기 VS B. 하나의 시점으로 그리기

프로필을 그려 보세요!



「게르니카」를 더 자세히 이해해 봅시다. 앞쪽의 설명을 참고하여 소재의 의미를 추측하고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게르니카」의 의미를 알아보려면



- 아이를 안고 우는 엄마
- 사람 눈을 가진 황소
- 번쩍이는 전구
- 여인이 든 쫓불

- 독재자 포랑코 장군
- 전쟁의 피해자
- 게르니카를 구할 쫓불
- ‘번쩍’하고 터지는 폭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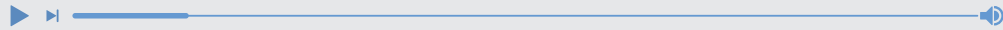
피카소는 게르니카에서 일어난 일을 알리고 싶어 그림을 그렸고, 그림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게르니카의 참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사건이 있나요? 사건을 알리고 싶은 이유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알리고 싶은 사건은
이유는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시녀들

(캔버스에 유채 / 320.5×281.5 cm / 1656년 작)

벨라스케스 (Velázquez, Diego Rodriguez de Silva y / 에스파냐 / 1599~1660)



밋미

구독자 10.5만 명

미술 연구가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그림이 있어요. 바로 이 그림이죠. 그림의 장소는 알카사르 궁전에 있었던 벨라스케스의 작업실이에요. 공주, 시녀들, 궁정인들이 모여 있네요. 특이한 건 이 중에 「시녀들」을 그린 미술가 본인이 그림 속에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요? 그림의 왼쪽을 보세요. 팔레트를 든 미술가가 우리와 눈을 맞추듯 정면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뒤쪽 벽면 가운데에 있는 거울은 이 작품을 한층 더 비밀스럽게 만들어요. 거울 속에 공주의 부모님이자 에스파냐의 국왕 부부가 보이거든요. 이건 왕과 왕비가 앞쪽에 서 있다는 의미일까요? 혹은 그림 속 커다란 캔버스에 그려진 국왕 부부의 초상화가 거울을 통해 보이는 걸까요?

오늘날에도 미술 연구자들은 「시녀들」을 가지고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무슨 상황일까?”, “작업실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그림의 비밀이 보이나요? 이번 시간을 통해 지학사 선정, 가장 비밀스러운 그림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시녀들」을 크게 보려면



벨라스케스의 작업실 안에는 몇 명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함께 적어 봅시다.

프로필을 그려 보세요!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nswers.



그림 속에서 벨라스케스는 팔레트를 들고 캔버스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어요. 캔버스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지 추측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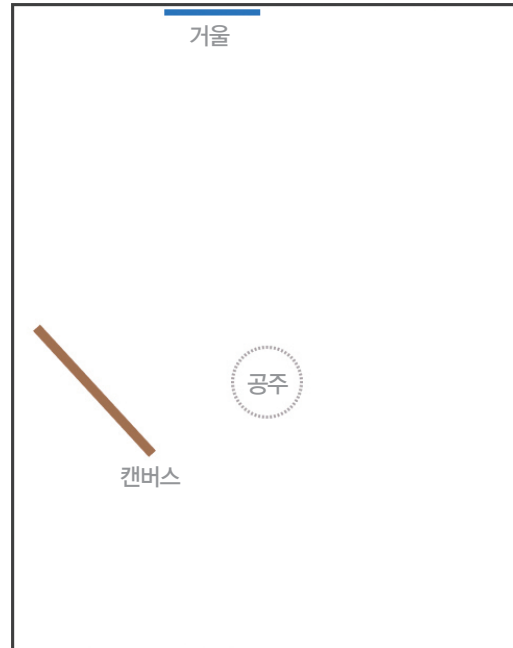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nswers.



「시녀들」과 힌트를 함께 보며 벨라스케스의 작업실을 상상해서 그려 보세요. 인물들의 위치를 생각하여 위에서 본 모습으로 그린 후, 친구들과 비교해 봅시다.

힌트

- 1 그림 가운데에는 어린 마르케리타 공주가 서 있고 시녀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 2 오른쪽에는 녹색 옷을 입은 시녀가 정면을 똑바로 보고 서 있다. 그 옆에 붉은 옷을 입은 시녀가 개의 등 위로 발을 올리고 있다.
- 3 시녀들의 뒤로는 시종장과 궁중 경호원이 어둠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시종장은 밝은 옷을 입고 있다.
- 4 왼쪽에는 높다란 캔버스 뒤에 팔레트를 든 벨라스케스가 정면을 보고 서 있다.
- 5 뒤쪽 벽면에 있는 거울에는 마르케리타 공주의 부모인 에스파냐의 국왕 부부가 비친다.
- 6 왕비의 시종이 5번에서 본 거울 옆 통로로 나간다.
- 7 에스파냐 국왕 부부는 작업실 안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벨라스케스의 작업실



어떤 미술 연구가들은 「시녀들」 속 상황을 이렇게 추측했어요. 여러분은 그림 속 상황이 어떻게 그려지나요?

에스파냐 국왕은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왕비와 공주를 데리고 벨라스케스의 작업실을 구경하곤 했어요. 「시녀들」은 이런 순간을 담은 장면일 거예요.

「시녀들」은 벨라스케스가 국왕 부부의 초상화를 그릴 때 공주가 찾아온 순간을 담은 것 같아요.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writing answers.

아이고, 시끄러워라!

야묘도추

野猫盜雞 (종이에 담채 / 22.4×27 cm / 18세기)

김득신 (조선 / 1754~1822)



밋미

구독자 13만 명

‘들야’, ‘고양이 묘’, ‘도둑 도’, ‘병아리 추’, ‘야묘도추’는 ‘들고양이가 병아리를 훔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 목을 읽고 보니 병아리를 입에 물고 달아나는 고양이가 보이네요. 이 그림엔 다른 이름도 있는데요. 바로 ‘파적도’입니다. ‘깨뜨릴 파’, ‘고요할 적’으로 ‘고요함을 깨는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참 잘 지었죠? 이 그림이 동영상의 썸네일이라면 클릭하자마자 왁자지껄한 소리가 흘러나올 테니까요.

그림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장면은 화창한 봄날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달아나면서부터 시작돼요. 예쁜 자식을 빼앗긴 닭은 화들짝 놀라 푸드덕거리며 쫓아가요. 이 모습을 본 주인도 덩달아 몸을 날리고는 담뱃대로 고양이를 잡으려고 해요. 큰 소란에 아내도 바깥으로 나와 발을 동동 거리죠. 그 바람에 마루에 있던 돗자리 짜는 도구가 바닥에 엎어졌어요.

보기만 해도 유쾌한 그림을 그린 미술가는 김득신이에요. 김홍도, 신윤복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풍속화 미술가로 불립니다. 풍속화는 그 시대의 풍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오늘날은 김득신의 그림을 통해 조선 시대 사람들의 일상을 엿보러 가요.



「야묘도추」를 크게 보려면

©간송미술관





옛 그림은 제목이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지어 주어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진 그림도 많답니다. 「야묘도축」의 제목을 월튼의 제목처럼 지어 볼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을 지어 봅시다.

프린트를 그려 보세요!

예) 길바닥 퇴사도 고양이와 병아리를 훔친



김득신은 그림이 더욱 생동감 있게 보일 수 있게 왼쪽 아래부터 대각선으로 병아리, 닭, 주인, 아내를 배치했어요. 이런 배치가 그림을 보는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키워드를 모두 활용하여 하나의 메시지로 나타내 봅시다.

키워드

병아리, 닭, 생동감, 대각선 구도, 아내



「야묘도축」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속화예요. 풍속화에는 다양한 계층의 생활상이 묘사되어 있어, 그 시대의 유행이나 생활 습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작품 중 풍속화는 무엇일까요? 맞는 그림에 동그라미를 하고, 그림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시대 모습을 적어 보세요.

1.



2.



3.



그림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시대 모습은

무덤에서 만난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회벽에 채색 / 5세기경)



깃미

구독자 1만 명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랬어?” 오늘 배울 무용총 수렵도는 옛날 사진 같은 그림이에요. 옛 고구려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거든요.

무용총은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진 옛 무덤의 이름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무덤 안에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오늘 살펴볼 건 그중에서도 사냥을 하는 모습이 담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활을 쏘는 사람들이예요.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 나가며, 호랑이와 사슴을 쫓는 모습이 보이나요? 활을 쏘아 본 적 없어도 느껴지는, 저 여유로움과 웅망함! 아마 고구려 사람들은 활쏘기 장인이었나 봐요.

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멋진 그림을 굳이 무덤 안에 그려 넣었을까요? 그건 무덤의 주인이 죽은 이후에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에요. 무덤의 주인이 기억하고 싶은 장면을 담아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 준 거죠. 우리는 이런 마음 덕분에 옛 고구려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활을 쏘며 산을 누비는 웅망한 모습들이요.



무용총 속 벽화를 크게 보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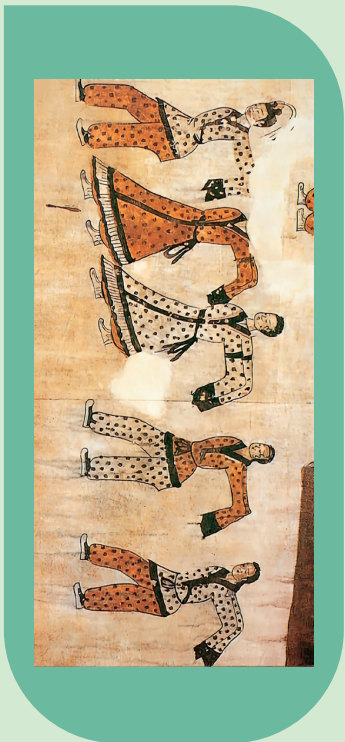


고구려 사람들은 무덤 속 벽화에 무덤의 주인이 평소에 기억하고 싶어 한 모습을 그렸어요. 이 무용총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상하여 적어 봅시다.

프로필을 그려 보세요!



고구려 사람들은 어떤 옷과 어떤 장신구를 착용했을까요? 무용총의 또 다른 벽화 「무용도」를 자세히 관찰하여 1500년 전 고구려 사람들의 모습을 추측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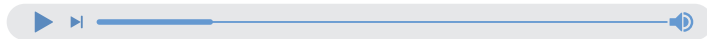
고구려 사람들은 무덤 벽에 흰색의 석회를 바르고 그림을 그렸어요. 벽화는 대체로 잘 보존되었지만 습기와 온도의 영향으로 석회가 떨어져 나가 그림을 알아볼 수 없는 곳도 있어요. 이 부분에는 원래 어떤 장면이 있었을까요? 혹시 또 다른 동물이 남아있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사려진 그림을 상상하여 그려 봅시다.



모견도

(종이에 수묵 담채 / 163×55.5 cm / 16세기)

이암 (조선 / 1499~?)



밋미

구독자 12만 명

어머,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에 어미 개와 강아지 세 마리가 함께 모여 있어요. 회색 강아지는 잠에 취해 어미 개의 등에 업혀 있고 흰 강아지와 검은 강아지는 어미 개의 품을 파고 들고 있네요. 아, 이 그림이 조선 제일가는 강아지 화가의 작품이라고요? 범상치 않다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

「모견도」는 우리말로 ‘어미 개를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미 개를 유심히 보는 게 좋겠죠. 저 표정 좀 보세요. 강아지 세 마리가 귀찮을 법도 한데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잖아요. 흰 강아지와 검은 강아지를 꼭 안은 다리는 어떻게요. 참 다정해 보이네요.

그림을 그린 이암은 어미 개의 모습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려고 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전통 그림에서 개와 나무를 같이 그리는 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글썄요, 우리 다음 쪽에서 함께 확인해 볼까요? 귀여운 강아지 가족 그림에 숨겨진 이야기를 낱알이 파헤쳐 보죠.



「모견도」를 크게 보려면



조선 시대에는 '나무를 지키는 개'를 한자로 표현했어요. 한자의 모양, 뜻, 소리를 보니 비슷한 점이 있네요. 아래 정보를 살펴보고, 그림에 숨은 의미를 추측하여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 봅시다.

모양	戌	戌	樹	守
뜻	개	지키다	나무	지키다
소리	술	수	수	수

'개'를 뜻하는 한자와 '지키다'를 뜻하는 한자는 (이)가 비슷해요. 게다가 '나무'를 뜻하는 한자와 '지키다'를 뜻하는 한자는 (이)가 똑같아요. 조선 시대 사람들은 한자에 의미를 담아 '나무를 지키는 개' 그림이 집과 보물을 (이) 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프로필을 그려 보세요!



「모견도」 속 어미 개와 강아지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래 힌트를 참고하여 주인의 정보를 추측해 봅시다.

힌트

1



- 2 백성들은 반려견에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방울 목걸이를 선물하기 힘들었어요.
- 3 이암은 궁궐을 드나들며 왕실의 반려동물과 임금님의 얼굴을 그림으로 남길 정도로 뛰어난 화가였어요.

어미 개와 강아지들의 주인은



옛날 우리 조상들은 먹과 붓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렸어요. 먹의 진하기를 다르게 하거나 채색으로 그림에 멋을 더했죠. 아래 설명을 통해 이암의 「모견도」에는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찾아봅시다.



몰골법



백묘법



구륵법

몰골법은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채색이나 먹의 진하기만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에 반해 백묘법은 먹으로 윤곽선만을 그려서 표현합니다. 구륵법은 먹으로 윤곽선을 그린 후, 마르면 그 안에 색을 칠해요.

_____이 사용되었어요.

흰 소

이중섭 (한국 / 1916~1956)



©홍익대학교박물관



깃미

구독자 13.9만 명

“소의 커다란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저 행복하다.” 이중섭은 소를 정말 사랑했어요. 소를 너무 좋아다 녀서 소도둑으로 몰리고, 나중에 ‘소증섭’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이중섭에게 대해 ‘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림을 통해 알아보아요.

여기 화난 듯한 표정의 소가 앞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어요. 소의 근육은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처럼 보이죠. 자세히 보니 거칠고 굵은 선으로 소를 표현했어요. 이 것이 소의 모습을 더욱 강렬하게 보이게 해요.

이중섭은 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았어요. 성실하고, 끈질기며, 또 힘든 일도 묵묵히 해내는 모습이 우리와 닮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이중섭은 주로 흰 소를 그렸어요. 흰 옷을 많이 입어 ‘백의민족’이라고도 불렸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흰 소에 담은 거예요.

누군가는 이중섭을 보고 ‘비운의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고, 극심한 가난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했으니깐요. 하지만 이중섭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붓을 잡았어요. 희망과 의지를 품은 이중섭의 그림을 더 자세히 알아보을까요?



「흰 소」를 크게 보려면



우리는 여러 관점과 정보를 통해 그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래 정보를 통해 이종섭이 「흰 소」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를 완성해 봅시다.

그림이 그려진 1955년

3년간 지속된 6.25 전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남겼어요. 150만 명이 이르는 사람이 죽었고, 땅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져 먹을 것도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굶주림과 가난에 시달렸어요.

한민족의 오랜 가족, 소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를 단순한 가족을 넘어 친숙한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소는 성실하고 끈질기며, 힘이 세지만 사납지 않아요. 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묵묵히 해내는 강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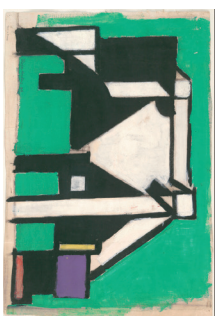
여러 미술가가 같은 소재를 그리더라도 그 의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이종섭과 김홍도, 반 무스부르흐가 「소」를 소재로 그린 그림을 보고 미술가의 의도를 찾아 연결해 봅시다.



• 소의 모습을 단순화하여
순수한 조형 요소로 표현했어요!



•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는
우리 민족을 담았어요!



• 소와 함께 노를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했어요!

세 미술가의
그림을 크게 보려면



프린트
물을
그려 보세요!

여러분!

이종섭



이종섭이 「소」처럼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동물과 자신이 맺은 점을 적어 봅시다.

나는 _____ 와 닮았어. 그 이유는 _____

신원을 그려 봐

라스코

(동굴 벽화 / 기원전 17000~15000년경 추정 / 프랑스)



밋미

구독자 14만 명

1940년 어느 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네 소년이 동네를 탐험하다가 좁고 어두운 지하 동굴을 발견했어요. 용기 있게 들어선 아이들은 아주 오래전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린 벽화를 발견했죠. 벽화의 크기와 그림 수는 정말 대단했어요. 무려 2000점이 넘는 그림이 있었으니까요.

벽화를 더 자세히 볼까요? 지금은 알 수 없는 구석기 시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그림은 황소, 말, 멧돼지처럼 우리가 잘 아는 동물로 보여요.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은 지금은 멸종한 동물의 모습일까요? 놀라운 건 이 중에는 길이가 약 4.5 m나 되는 황소 그림도 있다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의 황소는 얼마나 컸을지 궁금해하지요.

대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대한 벽화를 남긴 걸까요? 어떤 학자는 그 이유를 '소원'에서 찾았어요. 다음번 사냥이 잘되기를 소원하며 잡고 싶은 동물들을 그렸다고요. 이번 시간에는 라스코 벽화를 천천히 살펴보고 소원을 담은 그림을 그려 보기로 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라스코」 벽화를 크게 보려면



「라스코」 벽화를 VR로 보려면



라스코 벽화에는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왼쪽 QR코드를 통해 VR로 동물을 탐험하고, 발견한 동물들을 모두 적어 봅시다.

포로말을 그려 보세요!



나리면 벽화에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바라는 것, 기지고 싶은 것 등을 떠올리며 소원을 담아 나만의 벽화를 그려 봅시다.



우리나라에도 옛날 사람들이 소망을 담아 그린 동물 그림이 있어요. 바로, ‘용산 만구대 암각화’입니다. 라스코 벽화와 만구대 암각화를 함께 비교하며, 한반도에 살았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떤 동물을 그렸는지 관찰하여 적어 봅시다.



만구대 만구대 암각화, 용산 만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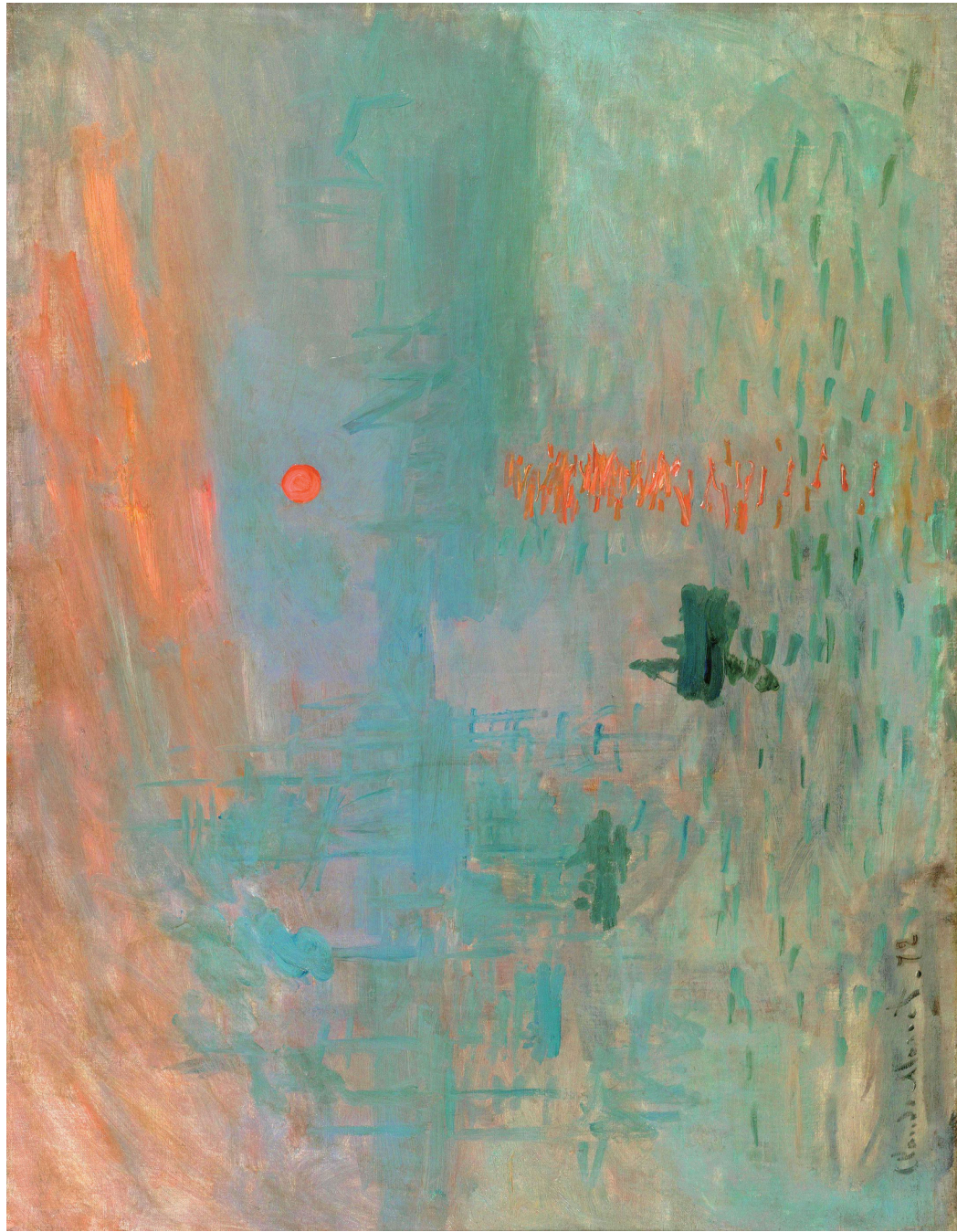


보면 볼수록 더 다채롭구나

인상, 해돋이

(캔버스에 유채 / 50×65 cm / 1872년 작)

모네 (Monet, Claude / 프랑스 / 1840~1926)



밋미

구독자 14.5만 명

무엇을 그린 걸까요? 화질이 낮은 사진처럼 그림이 흐릿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지 않네요. 「인상, 해돋이」를 그린 모네는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이나 대상들을 보이는 그대로 그려는 미술가예요. 머릿속에 있는 색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연의 색을 담으려고 했어요.

이 그림이 탄생하던 순간을 함께 상상해 볼까요? 모네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는 항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두웠던 하늘이 빨간 해로 밝아지고, 푸른 바다도 붉게 물이 들었어요. 해가 떠오르는 건 정말 순식간에요. 최대한 빨리 그려야 하죠. 덕분에 모네의 붓질은 더 바빠져요. 섬세하거나 정교하진 않지만, 빛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항구의 모습이 도화지에 담겼죠.

「인상, 해돋이」가 처음 전시회에 나왔을 땐 비판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새로운 방식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사랑 하는 '인상주의'가 첫발을 댄 거예요.



「인상, 해돋이」를 크게 보려면



이래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그림 제목에서 찾아서 적어 봅시다.

주의의 탄생

때는 1874년, 모네는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선보였어요. 그중에서도 「해돋이」라는 작품은 이름부터 너무 단조롭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때 모네는 골라지지 않고 **해돋이**라는 단어를 붙여 「**해돋이**로 이름을 바꾸어 작품을 내놓아요. 전통적인 스타일과는 다른 모네의 그림을 보고 유명한 미술 비평가 르로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벽화의 밑그림보다 완성도가 떨어져. 제목처럼 **적이네**.” 말 그대로 엄청난 조롱이었죠. 하지만 모네와 그의 친구들은 골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설명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클로드 모네, 마네, 르누아르가 사랑해 마지않은 **주의**였답니다.

프로그램을 그려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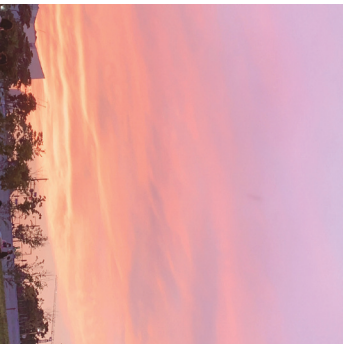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본 적이 있나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늘의 색이 계속 변화하죠. ‘노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색을 적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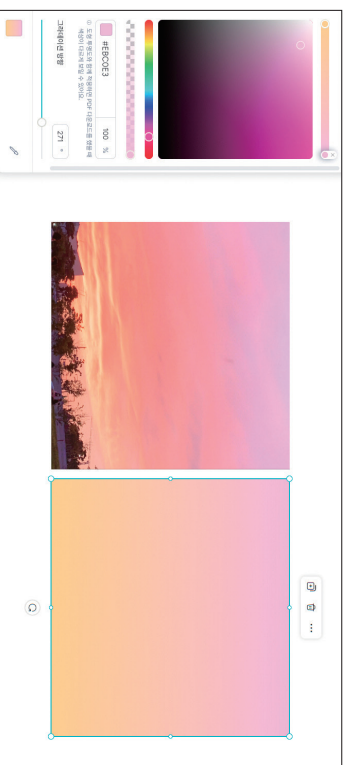
단근이 떠오르는 맑은 주황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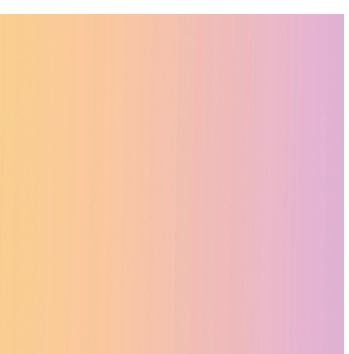
직접 노을 사진을 찍은 후 휴대 전화, 컴퓨터 프로그램의 스포이트 기능으로 색을 추출하여 나만의 노을 그리데이션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자세히 관찰하면 노을빛은 생각보다 다채로운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1. 노을 사진을 찍어요.



2. 휴대 전화나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사진을 불러오고, 옆에 박스를 만
든 후 스포이트 기능을 활용하여 그리데이션으로 색을 채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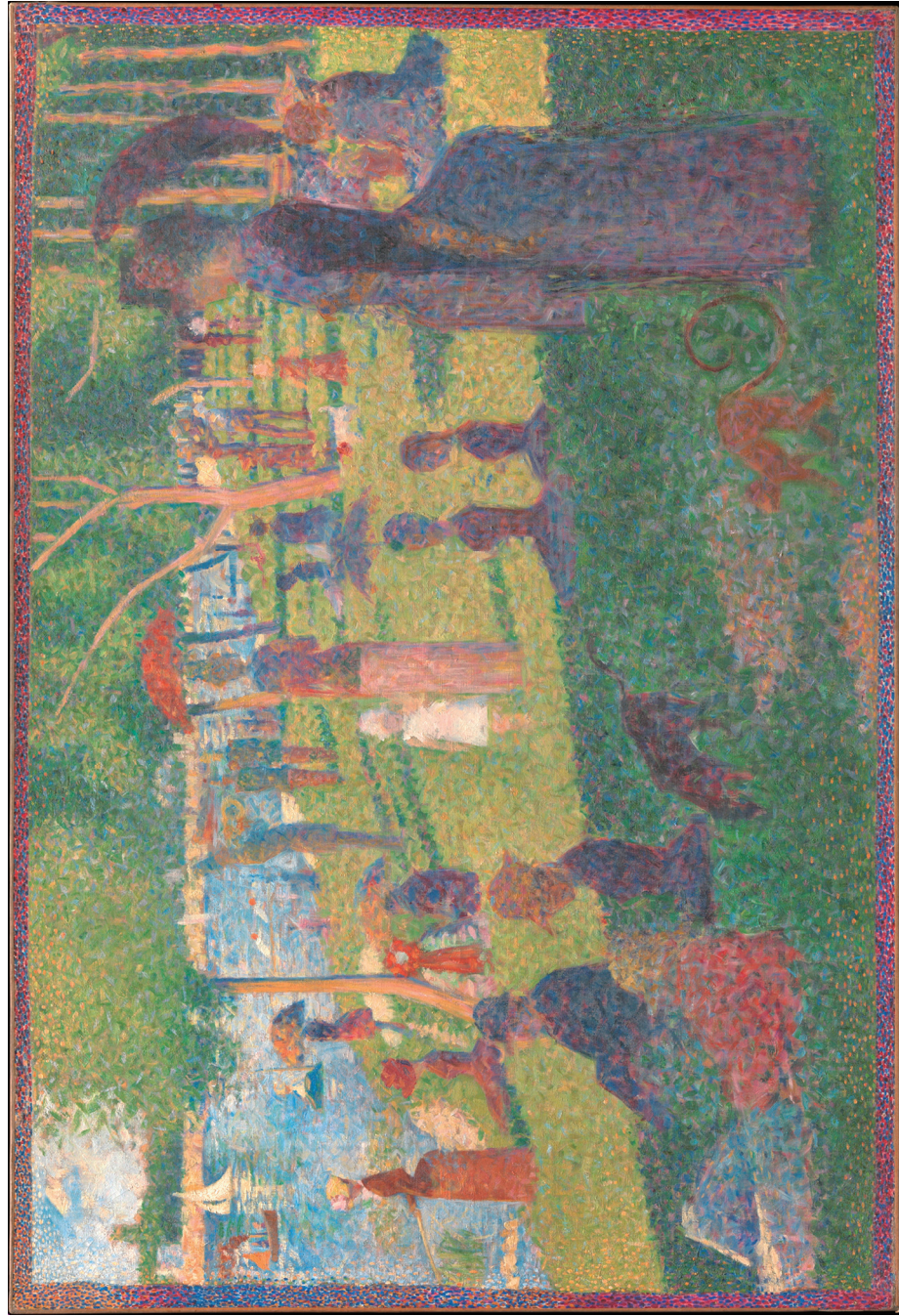
3. 완성된 그리데이션 작품을 다운로드 저장해요.

2년 동안 정말 찍으며 생각는 일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캔버스에 유채 / 207.6×308 cm / 1884~1886년 작)

쇠라 (Seurat, Georges-Pierre / 프랑스 / 1859~1891)



밋미

구독자 15만 명

프랑스에 ‘점 찍기’ 박사가 있다면 아마 그 건 쇠라일 거예요. 무려 2년 동안, 수백만 개의 점을 찍어 가로만 3m인 이 그림을 완성했어요. 심지어 마구잡이로 점을 찍어 완성한 것도 아니예요. 모든 점에는 과학적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쇠라는 왜 점을 찍어 그리는 방법을 선택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 덕분이었어요. 슈브렐이라는 과학자는 “두 가지 색을 나란히 한 후, 멀리서 보면 색이 섞여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쇠라는 점을 나란히 찍어 다양한 색을 만들기로 했어요. 당시에는 모두가 물감을 섞어서 색을 만드는 방법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나, 그야말로 엄청난 도전이었죠.

섬세한 붓질로 자신의 실력을 뽐내던 시대에, 점투성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짐작이 가나요? 오늘은 이 그림이 불러온 큰 파장을 몸소 확인해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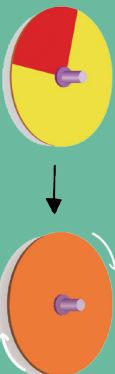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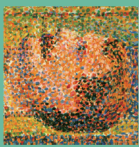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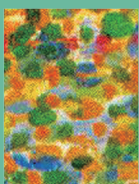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를 크게 보려면



물감을 섞는 방법 말고도 색을 섞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쇠리는 세상의 다양한 색 혼합 방법들이는 화기였어요. 이 중 「그랜드지트 섬의 일요일 오후」에 쓰인 방법은 무엇일지 추측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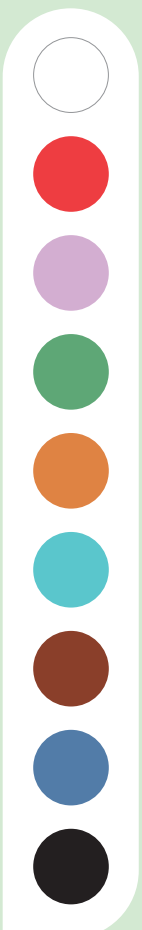
1. 빛으로 섞어요.
2. 물감으로 섞어요.
3. 나란히 찍어서 섞여 보이게 해요.
4. 회전시켜서 섞여 보이게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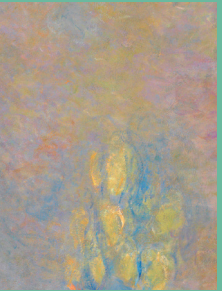
포인트를 그려 보세요!



그림 속 원숭이를 멀리서 한번, 가까이서 한번 관찰해 볼까요? 멀리서 보면 갈색인 원숭이를 가까이에서 보니 여러 색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었네요. 쇠리가 갈색을 만들기 위해 어떤 색의 물감들을 사용했는지 추측해서 모두 골라 봅시다.



많은 인상주의 화가는 쇠리의 작품을 '인상주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원래 인상주의 그림과 다르다는 이유에서요! 쇠리를 인상주의 화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네의 작품과 쇠리의 작품을 비교하며 눈에 띄는 차이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모네의 작품



쇠리의 작품

모네의 작품을 크게 보려면



쇠리의 작품을 크게 보려면



키워드 물감, 섞지 않고, 섞어, 점, 붓질

사과, 세상을 놀라게 하다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

(캔버스에 유채 / 65×80 cm / 1893년 작)

세잔 (Cézanne, Paul / 프랑스 / 1839~1906)



밧미
구독자 16만 명

“나는 사과로 세상을 바꾸겠어!” 세잔의 포부는 현실이 되었어요. 그 유명한 피카소가 “나의 유일한 스승인 세잔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우선 그림 속 사과들 좀 보세요. 하나하나 자세하게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 눈썰미가 좋은걸요? 어떤 사과는 위에서, 어떤 사과는 옆에서 그린 것처럼 보이니까요.

세잔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림을 그릴 땐 사물의 본질을 담아야 한다.” 사실 사물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모두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잔은 사물을 여러 방향에서 관찰하여 그 사물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모습으로 그리려고 했어요. 여러 사물이 함께 있는 그림도, 사물 하나하나마다 본질이 가장 잘 나타나는 각도에서 따로따로 그렸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린 듯한 정물화가 완성되었죠.

당시 사람들에게 세잔의 방식은 혁신적이었어요. 곧 많은 후배들이 세잔의 영향을 받았죠. 현대 미술의 가장 피카소까지도요. 미술의 흐름을 바꾼 세잔의 사과,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사과 바꾸기가 있는 정물」을 크게 보려면



세전은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세전의 밑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빈칸을 채워 넣어 봅시다.



세전

자연은 원기둥, 구,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어,

같은 사물이라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강력하고 흥미진진한 대상이 된단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 몇 달간은 같은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관찰할 거야. 오른쪽으로 보면 전에 못 본 게 나오거든. 왼쪽으로 보면 또 전에 놓친 게 나오고 말이야.

자연물의 형태를 _____, _____, _____로 파악하여 그렸어요. 또 사물을 표현할 때 다양한 _____에서 관찰했어요.

프로필을
그려 보세요!



세전의 그림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세전이 말한 원기둥, 구, 원뿔이 보일 거예요. 작품 속 사물들은 원기둥, 구, 원뿔 중 어떤 도형과 닮았는지 생각해 보고 그림 위에 직접 선으로 그려 봅시다.



책상 위에 좋아하는 물건 3가지를 올려 두고 정물화를 그려 보세요. 단, 세전처럼 여러 각도에서 사물을 관찰하여 각각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그려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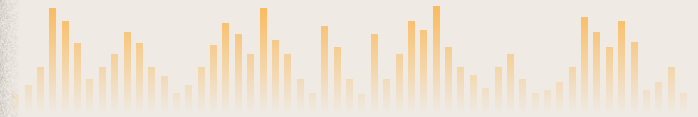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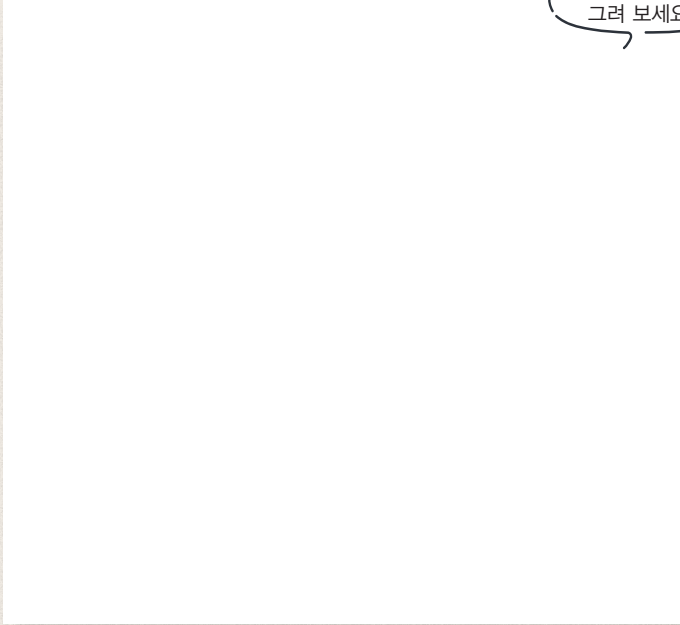


인생 영화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모둠원과 함께 이번 학기에 배운 그림 중 가장 좋았던 그림을 선정해 보아요.
그리고 선정한 그림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아요.

썸네일을 직접
그려 보세요!



우리 모둠의 인생 영화

플레이리스트 제목

이 그림에 잘 어울리는 노래 1 ▶



이 그림에 잘 어울리는 노래 2 ▶



이 그림에 잘 어울리는 노래 3 ▶



이 그림에 잘 어울리는 노래 4 ▶



영화 퀴즈 정답

6쪽

구성 8

인디스키는 악기 소리를 색깔과 연관 지어 이해했어요. 바로 아래 제시되었던 여러받은 '구성 8, 속 여러 가지 색 들을 보면 어떤 악기가 떠오르나요? 다음 색의 어울리는 악기를 적어 봅시다.

밝은 형색은 플루트, 어두운 형색은 첼로, 색조가 더 짙어지면 콘트라베이스의 소리를 맡았다. 또 조력은 중간 톤의 바이올린, 빨강은 트럼펫의 울림 같다.

구성 8, 속 협 선, 선, 색에 담긴 선율과 박자를 느껴 보세요. 그림을 감상하며 떠오르는 음악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적어 봅시다.

내가 그린 그림을 노래로 만들어 주는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직접 작곡해 보세요. 그리고 모듬팀이 모여 저자 만든 음악을 하나로 이어지게 재창하여 감주곡을 만들어 봅시다.

그림으로 만든 노래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 보자

1. 표현하고 싶은 음악을 상상하여 그려요.
2. 색을 바꾸면 소리도 달라져요.
3. 재생 버튼을 눌러 나의 노래를 감상해요.

구성 8

- 1. 노랑: 경쾌한 소리의 템버린, 가벼운 소리의 마라카스 등
- 분홍: 맑은 울림의 칼림바, 아름다운 선율의 리코더 등
- 검정: 웅장한 소리의 오르간, 무거운 소리의 베이스 기타 등

2. 얇은 곡선은 가벼운 리듬감을 표현한 것 같다. 또 알록달록한 원들은 기분 좋고 맑은 소리를 낼 것 같다. 그래서 악류의 'Love Lee'나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가 떠오른다.

3.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8쪽

절규

그림을 그리던 몽크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아래는 몽크가 '절규'를 그리며 쓴 일기예요. 글을 읽으며 몽크의 마음을 상상해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 봅시다.

내가 절 무렵 나는 두 친구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빨갛게 변했다. 피도의 피로 를 느낀 나는 멍하니 서서 난감해 가었다. 불의 것바라라 것들이, 캄캄한 피오로 해안을 따라 퍼져 갔다. 공포에 몸을 떨며 휘저긴 나를 함께 두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다. 그때 나는 기대하고 무 한단 자만의 절규를 들었다.

미술가들은 작품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다르게 하여 어떤 원리를 그리기도 해요. '절규'도 비슷한 듯 다른 작품이 세 개 더 있습니다. 오늘 배운 '절규'를 포함한 네 작품을 비교하며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비슷한 점: 불에 손을 얹고 있는 남자
차이점:

유명한 작품은 다른 작품에 의해 재해석되거나 따라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러한 과정을 일컫는 원화의 한 문법 을 따라 만드는 방법을 '오마주'라고 합니다. '절규'를 오마주한 영화도 있어요. 아래 이미지를 옮겨미리 함께 보 며 영화감독이 '절규'를 오마주한 이유를 모두 알려 봅시다.

크리스마스, 케빈은 영과 싸워 그 벌로 다락방에 갇히게 된다. 그러던 중 케빈의 가족들은 비행기 시간 때문에 사무로(사)가 케빈을 잡고 프랑스로 가 버린다. 혼자 남은 케빈은 혼자서 케빈이 소리를 울어주도록 해 주려 하지만, 도둑 건조가 자신의 입을 노리는 사람은 알게 되 는데... (니콜라 필레, 1990)

1. 유명한 작품과 비슷하게 하여 친숙함을 주고 싶어서
2. 영화감독이 몽크의 손주라서
3. '절규'의 주인공이 영화 주인공도 하고 싶다고 해서
4. 영화 속에 '절규'와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절규

1. 무서움, 공포, 겁에 질림, 두려움, 불안, 혼란, 초조 등

2. 비슷한 점: 불에 손을 얹고 있는 남자, 일렁이는 배경, 앞서 걸어가는 두 사람 등
차이점: 작품의 색, 걸어가는 두 사람의 자세, 배경 속 배의 개수 등

3 ①, ④

14쪽

작품 속 시민들의 표정을 살펴보고, 손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상하여 적어 봅시다.



1

이제는 표현이 태어나기 전 고대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조각 작품, '밀로의 비너스'예요. 키워드를 활용하여 '칼레의 시민'과 '밀로의 비너스'의 차이점을 적어 봅시다.



키워드
표현 대상, 특징, 여신, 평범한 시민, 아름다운 비율, 인물의 감정 등

2

'칼레의 시민'은 종종 소조 작품으로, 합류나 정표 등 형태를 변형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후 청동으로 형태를 비서 만들었어. 형상을 감상한 후 청동으로 형태를 본떠올 때의 장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3

3차 과제를 보려면

칼레의 시민

- 1 학생들의 자유로운 답변을 유도해 주세요.
- 예) 남은 가족이 걱정돼. / 내가 한 선택이지만 두려워. / 이미 다짐했어. 후회하지 말자. / 진짜 죽는 건가? / 내가 왜 그랬을까. / 어쩔 수 없어. 내가 희생해야지.
- 2 「칼레의 시민」의 표현 대상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밀로의 비너스」는 여신처럼 특별한 존재를 표현했다. 또한 표현상의 특징이 다르다. 「칼레의 시민」은 시민 6명이 느낀 감정을 강조했지만, 「밀로의 비너스」는 아름다운 비율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 3 하나의 원형으로 여러 번 복제할 수 있다,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등

16쪽

우리는 달리의 그림을 초현실주의 작품이라고 표현해요. 이때 '초현실주의'란 무엇일까요? 일찍 내용을 공부하여 아래 메시지에 속 호응을 받고 단어를 유추하여 적어 봅시다.

초현실주의는 현실을 초월하여, **TV**와 **OOA**의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미술이에요. 비현실적인 대상을 상상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낸 달리가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미술가입니다.

1

달리의 작품 세계는 '프로이트'라는 유명한 학자의 생각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아래는 '기억의 영속성'에 담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프로이트와 달리의 이야기예요. 참고하여 '무의식'을 중심으로 달리의 그림을 해석해 봅시다.

이런 시계의 기원은 무의식에 큰 영향을 미쳐, 예전에 전쟁을 앞두고 큰 소리를 울렸다면 나중에 무슨 소리만 울어도 엄청난 불안을 느끼는 일이, 우리가 아는 이런 무의식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이야.

내 작품은 '꿈' 속 장면들 그림 그림이야.

나는 어렸을 때 작은 벽화 사색 위를 기대다니는 게임을 번 적이 있어. 아주 완벽하고 무서웠지. 게임은 시간을 먹는 죽음의 존재란 게 몰랐어.

아는 날 무의적으로 가 보니 카망베르 치즈가 흩날리고 있었어. 손가락으로 꼭 찔렀더니 손가락에 끈하게 발이 녹아내렸지. 이 치즈를 보니 영감이 딱 떠오르더라!

1

두 시계는 각각 어떻게 생겼어요?
①의 시계는
②의 시계는

2

두 시계를 이렇게 표현한 달리의 무의식에는 무엇이 있었을지 달리의 말을 본떠 상아 생각해 봅시다.

기억의 영속성

- 1 꿈, 무의식
- 2
- ①은 동그란 시계 위에 개미 떼가 몰려 있다. ②는 흐물거리는 시계가 가지에 걸려 있다.
 - 달리는 무의식중에 개미가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개미 떼가 올려진 시계는 죽은 시계, 즉 더 이상 시간이 흐르지 않는 시계를 나타낸 것 같다.
 - 달리는 흐물거리는 시계에 카망베르 치즈를 보았던 기억을 반영한 것 같다.

NO.5

어제 사진은 작품을 만드는 물감과 칼로의 모습이에요. 무엇이 다른지 두 사진을 관찰하여 두 미술가의 차이점을 적어 봅시다.

작은 물감 브러시 칼로

물감은 칼로는

다음 이야기를 읽고 물문의 빈칸에서 별첨스 계인을 채 봅시다.

나는 전통적인 표현 수단을 매체가 아닌 새로운 방법의 재해를 탐구하며, 붓으로 칠하여 개 그림을 그리는 대신 아주 큰 캔버스에 나의 에너지를 쏟아부어, 캔버스 위에 물감을 붓이 버리는 식으로 떨어, 붓을 휘둘러 물감을 떨어뜨리는 건 다반사이. 나는 이렇게 작품의 결과물보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물감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요?
 A. 작품의 결과 B. 작품 4 단계는 그림
 A. 물감을 붓 B. 붓을 이용해 칠하기
 A. 미술에 별첨스 B. 붓을 이용해 칠하기
 A. 구체적인 형태 B. 추상적인 형태

NO.5 작품이 정에서 얼마나 가려졌는지 아세요? 우리 약 1억 4천만 달러였다고 심지어 그녀는 2009년에 있는데 말이예요. 만약 나왔다면 'NO.5'에 얼마나 가격을 제시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 작품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1 폴록은 캔버스를 바닥에 두고 물감을 묻힌 도구를 움직이며 물감을 떨어뜨린다. 칼로는 이젤에 캔버스를 올려 두고 앉아서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

2 B. 작품을 만드는 과정
 A. 물감을 뿌려 자유롭게 그리기
 B. 바닥에 캔버스
 B. 추상적인 형태

3 학생들의 자유로운 답변을 유도해 주세요.

- 예 • 난 이 그림이 천만 원이라고 생각한다. 물감을 튀기며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이 혁신적이기 때문이다.
- 난 이 그림이 만 원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더 잘 그린 그림이 많기 때문이다.

세한도

수평이는 김경희 선생님을 만나 전통 그림의 종류에 대해 어떤 보았어요. '세한도'는 어떤 그림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전통 그림에는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먼저 전통 그림은 기본적으로 먹으로 그리는 거 알고 있지? 그중에서도 수묵화는 오로지 먹의 선과 붓을 활용해서 그리는 그림이랍니다. 또 수묵 화제는 먹으로 선을 굵게 세밀한 그림을 말하지, 그리고 먹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친하게 세밀한 그림을 전체로 그리고요.

그림 '세한도는 _____ 에 속한 그림이야'

'세한도'는 미술사가 그림을 그린 의도를 적은 글이 있어요. 글과 도장 속 한자를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약 미술사에게 유적 관료가 있었다면 이상자에게 어떤 해시를 보냈을지 상상해 보세요.

「세한도」 속 글과 그림 글귀와 도장 해설

상차미

소나무와 측백나무처럼, 내가 힘들었을 때 변치 않고 나를 생각해 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단어의 어울리는 자연물을 찾아 그려 봅시다.

1. 내가 힘들 때, 내에게 힘을 준 사람을 떠올려요.
 2.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요. (예 귀이개)
 3. 꽃과 사슴에 접속해 단어를 검색하여 자연물을 찾아요.
 4. 검색된 자연물을 따라 그려 그 사람에게 선물해 보아요.

왕복 사자 생활 왕복 사자 생활 왕복 사자 생활

1 수묵화

2 학생들의 자유로운 답변을 유도해 주세요.

예 외로운 유배 생활 중에도 네가 내 곁을 의리 있게 지켜 주는 게 시들지 않는 소나무와 측백나무 같다. 우리 이 우정을 오랫동안 잊지 말자.

3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초충도 8폭 중 ‘수박과 들쥐’

신라 물의 통일을 그린 그림은 신수화, 인물을 그린면 인화화, 바다 생물을 그린 그림은 어해도라고 해요. 신사임당의 그림의 낱이 물과 곤충을 그린 그림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물과 곤충을 그린 그림은 **초충도**라고 해요. 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을 그려서 재미있는 작은 물과 곤충을 그려요.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의 소재에는 재래의 벌레가 많이 있어요. 그림에 그려진 소재의 어울리는 것을 선으로 연결한 후, 신사임당이 초충도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여 메시지를 적어 봅시다.

			
알, 애벌레, 번데기를 거쳐 성장한다	청춘을 의미한다	씨가 많다	늘 부지런히 돌아다닌다
자식을 많이 낳아라	부지런의 일해서 부자가 되어라	청춘처럼 오래 젊게 살아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라

이 그림을 본 당시에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초충도 밑에 있는 그림은 조선 시대 미술가인 심사정의 작품이에요. 같은 소재를 삼았던 신사임당의 그림과 비교하여 각각의 그림에 맞는 설명에 V 표시를 해 봅시다.

신사임당	심사정	
소박한 소재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다채로운 색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섬세한 표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초충도

2 수박-씨가 많다-자식을 많이 낳아라
 들쥐-늘 부지런히 돌아다닌다-부지런히 일해서 부자가 되어라
 패랭이꽃-청춘을 의미한다-청춘처럼 오래 젊게 살아라
 나비-알, 애벌레, 번데기를 거쳐 성장한다-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라
 자식도 많이 낳고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청춘처럼 젊게 사세요.

3 신사임당: 소박한 소재, 다채로운 색, 섬세한 표현
 심사정: 섬세한 표현

인왕제색도

“인왕제색도는 대표적인 진경산수화 작품이에요. 그렇다면 진경산수화란 어떤 그림일까요? 양쪽 끝을 읽고 초점에 달랐는 단어를 채워 봅시다.

조선 시대 초·중기에는 화가들이 중국의 유명한 산을 상상하여 그리거나, 중국의 유명한 산수화를 따라 그렸어요. 그러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진경산수화’라는 새로운 산수화가 등장했어요. 여기서 ‘진경산수화’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산과 강을 **우리나라** 화가들이 그려서 그린 그림이에요. 아름다운 풍경이 더욱 잘 드러나도록 화가가 재해석을 하기도 해요.

인왕산의 바위는 원래 붉은색을 띠지만 ‘인왕제색도’에서는 짙은 색으로 표현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화가는 정선이 ‘인왕제색도’에 어떤 친구 이름이 잘리 낙자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추측해요. 아래 힌트를 보며 정선이 ‘인왕제색도’를 통해 친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상상하여 적어 봅시다.

힌트
 1 ‘인왕제색도’의 그림 오른쪽엔 ‘인왕산 비가 개다’라고 적혀 있다.
 2 비가 개면 날이 밝고 화창해진다.

아래도 속 명사는 원래의 미술가가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새롭게 재구성한 작품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어떤 점이 ‘인왕제색도’와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카레드: 쓰인 재료, 색, 움직임 등

1 우리나라 / 직접 관찰

2 바위가 비를 맞아 색이 짙어진 모습을 표현하였다.

3 인왕산에 비가 내렸다가 그치고 날이 밝아졌어. 너도 인왕산에 비가 개인 것처럼 병이 씻은 듯 낮고 건강해질 거야.

4 쓰인 재료가 다르다.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먹과 종이를 활용했고, 현대의 인왕제색도는 비디오프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색이 하나이고 움직임이 없지만, 현대의 인왕제색도는 다양한 색이 사용되었으며 움직임이 나타난다.

1. 옛 그림은 제목이 지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지어 주어진 제목을 가진 그림도 많아요. '야묘도추'의 제목을 본문의 제목처럼 지어 볼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목을 지어 봅시다.

예 김백사 역시도 고양이가 병아리를 훔침

2. 김득신은 그림이 더욱 생동감 있게 보일 수 있게 왼쪽 아래부터 대각선으로 병아리, 닭, 주인 아내를 배치했어요. 이런 배치가 그림을 보는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키워드를 모두 활용하여 하나의 메시지를 나타내 봅시다.

키워드
병아리, 닭, 생동감, 대각선 구도, 아내

3. '야묘도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속화에요. 풍속화는 다양한 계층의 생활상이 묘사되어 있어, 그 시대의 유행이나 생활 습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작품 중 풍속화는 무엇일까요? 맞은 그림에 동그아미를 하고, 그림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시대 모습을 그려 봅시다.

그림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시대 모습은

야묘도추

1 학생들의 자유로운 답변을 유도해 주세요.

예 천하제일 도둑냥, 저 닭의 아이를 훔쳤다, 이 병아리는 이제 제 겁니다, 주인집 막내 병아리, 정신 차렸더니 병아리를 빼앗긴 건에 대하여 등

2 병아리부터 아내까지 대각선 구도로 이어져서 생동감이 느껴져요.

3 • ②
• 옛날에는 아이들이 서당에서 글을 배웠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길러서 하나로 묶고 다녔을 거예요, 옛날에는 학생이 잘못을 하면 훈장님이 얇은 회초리로 혼을 냈을 거예요 등

1. 고구려 사람들은 무덤 속 벽화에 무덤의 주인이 평소 기어다니고 싶어 한 모습을 그렸어요. 이 무용총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지 상상하여 지어 봅시다.

2. 고구려 사람들은 어떤 옷과 어떤 장신구를 착용했을까요? 무용총의 또 다른 벽화 '무용도를 자세히 관찰하여 1500년 전 고구려 사람들의 모습을 추측해 봅시다.

3. 고구려 사람들은 무덤 벽에 황색이 성황을 빙그레 그렸어요. 벽화는 대체로 잘 보존되었지만 습기와 온도의 영향으로 석화가 일어나서 그림을 알아볼 수 없는 곳도 있어요. 이 부분은 원래 어떤 장면이 있었을까요? 혹시 또 다른 풍물이 담겨서 있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사라진 그림을 상상하여 그려 봅시다.

그림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시대 모습은

무용총 수렵도

1 말을 타고 활쏘기와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등

2 학생들의 자유로운 답변을 유도해 주세요.

예 고구려 사람들은 춤추기를 좋아했다, 지금의 케이팝(K-pop)처럼 여러 명이 같은 춤을 추는 문화가 있었다, 물방울무늬가 그려진 옷을 입었다 등

3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모견도

조선 시대에는 '나무를 지키는 개'를 한자로 표현했어요. 한자의 모양, 뜻, 소리를 보니 비슷한 글자 있네요. 아래 정보를 살펴보고, 그림에 숨은 의미를 추측하여 빈칸에 글자를 적어 봅시다.

모양	戊	戌	樹	守
뜻	개	지킴이	나무	지킴이
소리	술	수	수	수

‘개’를 뜻하는 한자와 ‘지킴이’를 뜻하는 한자는 (이)가 비슷해요. 게다가 ‘나무’를 뜻하는 한자와 ‘지킴이’를 뜻하는 한자는 (이)가 똑같아요. 조선 시대 사람들은 한자(이)의 의미를 담아 ‘나무를 지키는 개’ 그림이 집과 보물을 (이)를 가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1 모양 / 소리 / 지켜

“모견도, 즉 어미 개와 강아지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래 힌트를 참고하여 주인이 누구인지를 추측해 봅시다.

2 학생들의 자유로운 답변을 유도해 주세요.

예) 어미 개와 강아지들의 주인은 아주 잘사는 양반이거나 왕족이었을 것이다.

3 몰골법

옛날 우리 조상들은 먹과 물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렸어요. 먹의 진하기를 다르게 하거나 채색으로 그림에 뜻을 더했죠. 아래 설명을 통해 이경의 ‘모견도’에는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찾아봅시다.

몰골법 먹묘법 구획법

몰골법은 먹의 선을 그리지 않고 채색이나 먹의 진하기를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이에 반해 먹묘법은 먹으로 윤곽선을 그려서 표현합니다. 구획법은 먹으로 윤곽선을 그린 후, 미묘한 그 안에 색을 칠해요.

이 사용되었어요.

흰 소

우리는 여러 관행과 정서를 통해 그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래 정제를 통해 이경의 ‘흰 소’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림이 그려진 1955년

3년간 지속된 6.25 전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남겼어요. 5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죽었고, 많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을 정도로 땅까지 먹을 것도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굶주림과 가난에 시달렸어요.

한민족의 오랜 가축, 소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를 단순한 가축을 넘어 친숙한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소는 성실하고 끈기 있고, 힘이 세지만 사냥치 않아요. 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묵묵히 해주는 강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어려 미술가가 같은 소재를 그리더라도 그 의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경의 소와 김홍도, 반 황스부부의 소를 살펴보고 이경의 그림을 보고 미술가의 의도를 찾아 연결해 봅시다.

1 아무리 힘들어도 소처럼 묵묵히 견디고 힘을 내어 함께 어려운 시대를 헤쳐 나가요 등

2 그림1-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는 우리 민족을 담아야지! 그림2-소와 함께 논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야지! 그림3-소의 모습을 단순화하여 순수한 조형 요소로 표현해야지!

3 학생들의 자유로운 답변을 유도해 주세요.

이경의 ‘소’처럼 내를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동물과 자신이 많은 점을 적어 봅시다.

나는 _____ 의 닮았어. 그 이유는 _____

- 1 아무리 힘들어도 소처럼 묵묵히 견디고 힘을 내어 함께 어려운 시대를 헤쳐 나가요 등
 - 2 그림1-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는 우리 민족을 담아야지! 그림2-소와 함께 논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야지! 그림3-소의 모습을 단순화하여 순수한 조형 요소로 표현해야지!
 - 3 학생들의 자유로운 답변을 유도해 주세요.
- 예) 나는 강아지와 닮았어. 늘 애교가 많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이야.

라스코

1 라스코 벽화는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암벽 OR코드를 통해 VR과 동굴을 탐험하고, 발견한 동물들을 모두 적어 봅시다.

2 나라인 벽화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요? 버리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등을 떠올리며 소원을 담아 나라인 벽화를 그려 봅시다.

3 우리 나라에는 옛날 사람들이 소원을 담아 그린 동굴 그림이 있어요. 벽화 중심 반구에 암각화입니다. 라스코 벽화와 반구의 암각화를 함께 비교하며, 한반도에 살았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떤 동물을 그렸는지 관찰하여 적어 봅시다.




1 소, 말, 멧돼지, 사슴, 매머드, 염소, 사자, 곰, 늑대 등

2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고래, 거북, 물개, 물고기, 사슴, 호랑이, 표범, 늑대, 여우, 너구리 등

인상, 해돋이

1 아래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그림 제목에서 찾아서 적어 봅시다.

2. 주위의 환경
 때는 1971년, 모네는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선보였어요. 그중에서도 '해돋이'라는 작품은 이로부터 너무 단조롭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때 모네는 글하지 않고 **●**이라는 단어를 붙여 **●●**, 해돋이로 이름을 바꾸어 작품을 내놓았어요. 전통적인 스타일과는 다른 모네의 그림을 보고 유명한 미술 비평가 로코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벽화의 일그러짐보다 완성도가 떨어져, 채택처럼 **●●** 적어내." 말 그대로 엄청난 조롱이었죠. 하지만 모네와 그의 친구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설명했어요. 그렇게 '인상'이 바로 클로드 모네, 마네, 르누아르가 사랑해 마지않은 **●●** 주의였답니다.

2. 해돋이 지는 하늘을 본 적이 있나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늘의 색이 계속 변하지요. '노를'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색을 적어 봅시다.

3. 아침 노를 사진을 찍은 후 휴대 전화, 컴퓨터 프로그램의 스톱모드 기능으로 색을 추출하여 나만의 노를 그래픽이론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자세히 관찰하면 노를빛은 상이보다 다채로운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1 인상

2 학생들의 자유로운 답변을 유도해 주세요.

예) 강렬한 불꽃의 빨강, 부끄러울 때 양 볼에 나타나는 분홍, 깊은 바다의 파랑, 진한 향기를 풍기는 주황, 해바라기를 닮은 노랑, 날씨가 좋은 날의 연한 파랑 등

3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물감을 섞는 방법 말고도 색을 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쇠라는 색상의 다양한 색 혼합 방법을 아는 화가였어요. 이 중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색에 쓰인 방법은 무엇인지 추측해 봅시다.

1. 밑으로 섞어요. 2. 물감으로 섞어요. 3. 나란히 찍어서 섞어 보이게 해요. 4. 회전시켜서 섞어 보이게 해요.

그림 속 원숭이를 멀리서 한 번, 가까이서 한 번 관찰해 볼까요? 멀리서 보면 갈색인 원숭이를 가까이에서 보니 여러 색의 원숭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쇠라기 색깔을 만들기 위해 어떤 색의 물감들을 사용했을까 추측해서 모두 알려주세요.

많은 인상주의 화가는 쇠라의 작품을 인상주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원래 인상주의 그림과 다르다는 이유에서인 쇠라를 인상주의 화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두네의 작품과 쇠라의 작품을 비교하여 눈에 띄는 차이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키워드: 물감, 섞지 않고, 섞어, 점, 붓질

1 3. 나란히 찍어서 섞어 보이게 해요.

2 검정, 흰색을 제외한 모든 색

3 모네는 물감을 섞어서 붓질했고, 쇠라는 물감을 섞지 않고 점을 찍어서 그렸다.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

세잔은 그림을 그릴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세잔의 말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빈칸을 채워 넣어 봅시다.

자연은 원기둥, 구,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어.

같은 사물이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강력하고 흥미진진한 대상이 된단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몇 달간은 같은 자리에서 완벽하지 않고 관찰할 거야. 오른쪽으로 보면 천에 붓 분개 나오거든. 왼쪽으로 보면 또 천에 놓인 게 나오고 싶어.

세잔의 그림을 자신의 삶과 비교해서, 세잔이 알린 원기둥, 구, 원뿔이 보일 거예요. 작품 속 사물들은 원기둥, 구, 원뿔 중 어떤 도형과 닮았는지 생각해 보고 그림 위에 직접 선으로 그려 봅시다.

색상 위에 놓여있는 물건 2가지를 올려 두고 정물화를 그리 보세요. 단, 세잔처럼 여러 각도에서 사물을 관찰하여 각각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그려 봅시다.

자연물의 형태를 _____, _____로 파악하여 그렸어요. 또 사물을 표현할 때 다양한 _____에서 관찰했어요.

예) 빵-원기둥, 사과-구 등

1 원기둥, 구, 원뿔, 각도

2 학생들의 자유로운 답변을 유도해 주세요.

예) 빵-원기둥, 사과-구 등

3 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